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해님 아버지, 21세기를 살아가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인해 고난과 압박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음을 보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더욱 복음전파에 힘쓰도록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임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이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함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4장 12-13절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www.chpress.net

주후 2018년 8월 4일 (토) 제 1692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종교자유, 하나님이 주신 보편적 진리

CT, '종교자유 증진 위한 장관급 국제회의' 의 지구촌 선언문 소개

미 국무부는 지난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40여 개국의 정부 관계자, 종교지도자, 인권운동가, 시민단체 지도자 80여 명을 워싱턴DC로 초청해, 종교자유 증진을 위한 국제회의(Ministerial to Advance Religious Freedom)를 개최했다.

지구촌에서 종교의 자유를 주제로 한 이 국제회의는 미국 국무부 주관으로 올해 처음 열렸다. 종교의 자유분야 모범국가 80여 개국이 소개되고, 대표적인 종교탄압 국가로 중국과 이란, 미얀마가 지목됐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회의가 첫 "종교 자유 신앙(향상)을 위한 장관급 회의"라고 밝혔다. 이어 "개인이 자신의 신앙을 존중받으며 자유롭게 행동하고 활동하게 되면 위대함을 위한 역량을 갖추게 된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장관급 회의의 목표가 "전 세계 모든 개인을 위한 종교 자유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의 국무부가 이 문제를 "진정한 우선순위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앙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경배할 권리를 지녀야 하고, 또한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기로 선택했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권리도 허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 회의에서는 종교적 불관용과 종교에 기반을 둔 차별 및 폭력 등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사흘간의 회의를 마치면서 전 세계 종교의 자유를 촉구하는 선언문을 채택했다(Pence and Pompeo Make Big Religious Freedom Pledges: Potomac Declaration and action plan hope to persuade more nations by the second US religious freedom ministerial next year).

"종교의 자유"라는 주제로 미 국무부가 이례적으로 개최한 이번 회의는 근본적 인권인 종교의 자유가 북한 등 전 세계에서 보장되도록 하기 위한 기초 작업을 다진 것으로 평가된다.

미 국무부는 매년 국제종교자유 보고서를 발표하지만 종교자유를 의제로 장관급 국제회의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결국 지구촌 전체를 아우르는 이름으로 내년부터 종교의 자유를 신장시키거나 증진시킬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종교적 불관용과 종교에 기반을 둔 차별 및 폭력 등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그리고 참석자들은 사흘간의 회의를 마치면서 전 세계 종교의 자유를 촉구하는 선언문(Potomac Declaration)을 채택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종교의 자유는 전 세계적으로 지켜내야 하는 심오한 인권"이라고 밝혔다. 또한 부속선언문을 통해 중국·이란·미얀마 등 3개국의 종교탄압 실태를 비판했다. 북한은 공식적으로는 거론되지 않았다.

국무부가 지난 5월 발간한 '2017 국제종교자유 보고서'에서 북한의 종교탄압을 포괄적으로 지적한 것과 비교하면 온도 차가 느껴진다.

각국 장관급 회의라는 형식을 취하기는 했지만 사실상 '미-북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입장이



미 국무부가 주최한 '종교자유 증진 위한 장관급 국제회의'가 지난 24일부터 사흘간 워싱턴 DC에서 개최됐다.

다분히 담겼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폼페이오 장관은 인사말에서 "특별히 우리는 미얀마, 중국, 이란에 대해 성명을 내놓을 것"이라고 예고하면서도 북한에 대해선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미북협상 실무총책'으로서 북한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인권문제를 거론해 북한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속내가 담긴 것

으로 읽힌다.

그러나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은 북한의 종교자유 문제를 직접 언급했다.

펜스 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중국에 이어 북한을 사례로 거론하면서 "그 이웃 북한이 훨씬 더 심하다"고 비판했다.

<3면으로 계속>



교회 재정관리, 건강하고 투명해야

처치리더스.컴, 경영인 출신 목사가 전하는 목회자의 교회재정에 관한 5가지 실수 소개

필자인 론 에드먼슨(Ron Edmondson) 목사는 오랫동안 경영 일을 하다 목회를 하게 돼, 가끔 에드먼슨 목사가 교회의 재정에 개입을 하거나 관심을 갖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독특하다고 여겨진다. 교회 재정의 예산과 관리와 관련해 경영관계자와 재정 위원회와 긴밀히 일하기 때문이다.

에드먼슨 목사는 계약을 협상하고, 은행가와 만나고 재무제표를 잘 분석하는 것으로 익히 알려져 있다. 교회의 경영적 측면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그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는 수년간 다른 교회와 일하다 보니, 재정 분야에 있어 목회자의 여러 접근법을 많이 보아왔다며 어떤 목회자들은 직접 재정을 운영하기도 하고, 완전히 다른 곳에 맡겨 운영하기도 한다고 말한다. 이에 그는 재정 문제에 관해 여러 생각을 정리하게 됐고, 특히나 목회자가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실수에서 확실히 알게 됐다고 밝혔다(5 Mistakes Pastors Frequently Make With Finances). 아래에 에드먼슨 목사가 찾아낸 5가지 실수를 소개한다.

기본적 재정지식 있어야 하나 지나친 관여는 금물 신뢰받는 자들로 재정담당 하도록 하고 공개해야

재정에 완전 무지한 상태

목회자가 기업가의 마음을 가질 필요는 없다. 현명한 재정상담을 받으면 된다. 하지만 교회를 효과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지식은 좀 알 필요가 있다. 교회의 재정 문서 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사람들을 잘 이끌 수 있도록 재정 용어에 관하여 몇 가지 기본적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 특히나 투자와 신용 문제가 중요한 오늘날의 세상에

서는, 교회에 헌금하는 사람들은 사령에 투자하려고 하기 전에 리더십이 교회의 재정을 다룰 수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한다.

너무 지나친 관여

목회자는 어느 순간에나 돈을 다루는 유일한 사람이 되어서 절대로 안 된다.

<3면으로 계속>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온라인으로 공부합니다"

준학사 / 학사 석사 박사 수료증	성서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목회학과(M.Div), 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목회학과(D.Min), 교회음악학박사(DCM-온캠퍼스) 가정상담 사역자, 유아교육 교사원장	ATS 정회원 월드선대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www.wmu.edu
--------------------	--	-------------------------------------

월드미션대학교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admissions@wmu.edu, 213) 388-1000

할렐루야 백화점

성경 / 기독교서적 / 일반서적 / 예술서적 / 성경 / 영적 성장 / 기쁨 / 조예 / 영성 / 영성서적 / 영성기독서적

교회 · 사업체 · 달력 · 기념패전문

뉴욕 Tel. 718) 762-0011 40-21 139th St. #118 Flushing, NY 11358
뉴저지 Tel. 201) 346-0030 5 Binnerton Terrace Patuxent Park, NJ 07650

서울 347-952-5442 1-800-404-1171 E-mail: igospelmail@hotmail.com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Forever 우표 특별할인 판매

그동안 49센트에 판매되던 Forever 우표 (행정 가격변동 없음)가 곧 60센트로 오를 예정입니다. 특별가 38센트로 한정 판매 합니다.

www.labookusa.com / cbc0191@hotmail.com
대표 강병찬 323-737-7699, 800-669-0451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2면		7면
시론 김홍운 목사		중세교회 1000년 조진모 목사	

WORLD MISSION UNIVERSITY
TRANSFORMATIONAL BIBLICAL EDUCATION

가을학기 신입생모집

온라인 프로그램, OC 상담대학원, 유캠퍼스 프로그램

한국어 강의, ATS, ABHE 정회원, 연방정부 재정지원 (유자격자), 미국 군중 / 군목 지원자격, 캠퍼스, 온라인 프로그램

모집마감 **2018년 8월 17일 (금)**
지원방법 인터넷을 통한 원서접수 (www.wmu.edu/applicationforms)
입학문의 **1.213.388.1000 | www.wmu.edu**

> 신학 (준학사, 학사, 석사, 목회학 박사)
> 상담학 (준학사, 학사, 석사)
> 음악학 (학사, 석사, 박사)
> 수료증 (유아교육, 가정상담, NGO)

월드미션대학교 • www.wmu.edu • 1-213-388-1000 • admissions@wmu.edu



시론

총 쏘는 사람들



김문목 목사
(백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

미국에서 연간 3만명 가량이 총기사고로 죽는다고 합니다. 헌법적으로 자기방어를 위하여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미국에서 민간인들이 전 세계 소형 총기의 40%에 가까운 3억9300만 정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2018년 6월 현재). 미국무부와 질병통제예방센터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총기 사건 및 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31만6천545명인데(2015년 현재) 이것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넘어선 통계라고 합니다. 세계평화를 위해 헌신해온 미국이 세계에서 무기를 제일 많이 만들어 팔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무기 생산 20대 회사 중에 14개가 미국회사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 속히 사람들이 총을 쏘는 일이 줄어들고 없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소총을 쏘서 사람을 죽이는 일 못지않게 주위사람들을 죽이는 일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입으로 쏘는 총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하여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잠18:21)고 말씀합니다. 실로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사회학자들에 의하면 하루에 남자는 평균 10,000개의 말을 여자는 평균 25,000개의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좋은 약 같은 말도 있지만 남을 죽이는 총과 같은 말도 많습니다. 그래서 인지 일생 수많은 전쟁을 겪은 다윗은 전쟁에서 죽는 것보다 입으로 쏘는 총에 죽는 경우가 더 많음을 절감하고 시편 141편 3절에서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실제로 총에 맞아죽은 사람들보다 입에서 발사되는 이 총을 맞고 죽은 사람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북한 방송에서 보는 여성 아나운서의 말은 커다란 대포소리 같고 한국 국회에서 싸우는 의원들의 말은 서로 박격포를 쏘는 것 같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기관총(파발총)을 쏘듯 말을 쏟아냅니다. SNS를 통하여 쏟아져 나오는 말들은 마치 화생방 핵무기처럼 땅 끝까지 퍼져나갑니다.

바울은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세상에서 총을 쏘는 입이 아니라 이웃과 교회와 사회를 살리고 세우는 입을 가지라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엡4:29)

둘째, 눈으로 쏘는 총입니다. 이 눈총은 소리 없이 한도 없이 쏘아대는 총입니다. 눈길은 눈의 방향, 눈의 느낌, 눈의 색깔, 눈빛의 온도를 나타냅니다. 어떤 사람의 눈길은 따뜻하고 또 어떤 사람의 눈길은 차갑습니다. 어떤 눈길은 부드럽고 또 어떤 눈길은 거칠게 느껴집니다. 남을 미워하고 시기와 질투심을 가지고 경쟁하는 사람의 눈길은 지지분한 눈총입니다. 갑질하는 사람들이 남을 무시하는 눈길은 거만한 눈총입니다. 이성을 깨닫지 못한 마음으로 보지 않는 눈길은 더러운 눈총입니다. 아무튼 이것들도 총이니 생명을 상하게 하고 죽이는 악인 것입니다. 아무리 성형수술을 하고 화장을 하여 아름답게 단장한 눈이라도 그 속에서 총이 나오면 참으로 무서운 결과가 생기지 않겠어요? 복음서에 보면 이러한 눈총을 가지고 쏘는 사람들이 주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인(신앙인)들이었으니 우리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중직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눈으로 범죄 하는 눈총행위를 엄하게 금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습니다.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마5:29).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선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마6:22-23)

셋째로 은혜의 총입니다. 말총과 눈총이 비생산적인 총이라면 은총은 너무나도 필요한 총입니다. 연전에 동부개혁신학교 학생들과 터키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차장으로 이동 중 진행자가 넉센스 퀴즈를 내서 즐거움을 더했습니다. 그 중에 한 문제가 “총 중에 가장 무서운 총이 무엇입니까?”였습니다. 답은 “눈총”이었는데 필자의 생각엔 정말 가장 무서운 정도로 힘 있는 총이 “은총”이라고 생각하여 그렇게 답을 했더니 진행자도 학생들도 모두 다 공감하며 즐거움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나누어주시는 총이 바로 은총 아니겠습니까? 당시 바리새인들의 눈총을 받으며 고개를 들지 못했던 세리들과 죄인들, 가난한 사람들과 병자들과 장애인들 그리고 여자들과 어린이들에게 부어주시는 예수님의 은총은 아무리 많아도 좋고 생기가 솟아오르고 소망이 넘칩니다. 이 나라와 모든 교회에서 소총과 눈총이 사라지고 대신 그 자리에 은총이 채워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선한 사람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지만 악을 꾀하는 사람은 정죄하심을 받을 것이다”(잠12:2).

pwkim529@gmail.com

‘지시자’ 아닌 ‘지원군’ 목회자가 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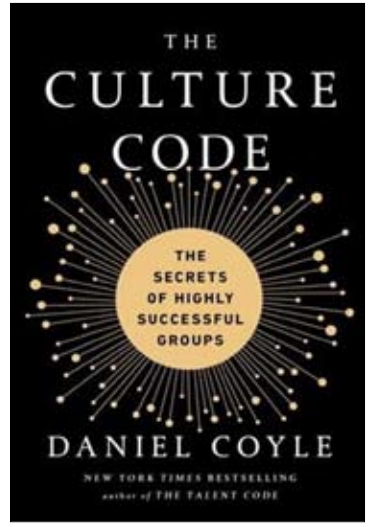
리더십저널, “대니얼 코일에게 듣는 ‘픽사’의 리더십, 교회에 적용하라” 제언

소규모 벤처 회사에 불과했던 구글은 어떻게 대기업 오버추어와의 경쟁에서 승리했을까? 왜 샌안토니오 스포츠에만 들어가면 실력이 형편 없던 농구 선수들도 최고 승률을 올리는 걸까? 네이비얼 대원들이 상관의 별다른 지시 없이도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하는 비결은 무엇일까?

대니얼 코일(Daniel Coyle)은 저널리스트이자 베스트셀러 작가로, 내셔널 매거진 어워드(National Magazine Award) 최종 후보에 2번이나 지명될 정도, 탁월한 스토리텔링과 치밀한 취재력을 인정받았다. 그가 저술한 열악한 환경에서도 특별한 재능을 발휘하는 사람들의 비밀을 파헤친 ‘탈런트 코드’는 출간 즉시 학계와 언론, 독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불러오며 베스트셀

러 대열에 올랐다. 이어서 그는 구글, 픽사부터 미 네이비얼, NBA 샌안토니오 스포츠까지 환상적인 케미로 세계 1%가 된 팀들의 특별한 문화를 파헤친 ‘컬처 코드(The Culture Code: The Secrets of Highly Successful Groups)’를 출간해 아마존 경제경영 베스트셀러, 2018년 워싱턴 포스트 리더십 추천 도서로 선정됐다.

코일에 따르면, 남다른 성취를 만드는 차이는 팀 안에서 최상의 케미스트리가 일어나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었다. 그 촉매제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우리 교회 목회자, 평신도 팀의 숨겨진 능력과 열정을 남김없이 끌어내기 위해서, 사람에게 집중하는 ‘픽사’의 지원군이 되어주는 리더십을 살펴보자.



픽사(Pixar Animation Studios)는 1995년 이후 제작한 16편의 영화로 평당 평균 5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린 세계적으로 유명한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다. 그러나 초창기에 픽사는 고전을 면치 못했다. 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하고 있을 즈음, 1995년에 제작한 ‘토이 스토리(Toy Story)’가 3억6000만 달러의 흥행을 기록하면서 비로소 성공가도를 달리기 시작했다. 이때 픽사의 창립자 에드윈 캣멀(Edwin Catmull)은 영화의 성공을 기뻐하던 다른 사람들과 달리 깊은 고민을 하게 됐다.

“지속 가능한 집단을 어떻게 만드는가?” 그는 세계적인 영화



수였다. 영혼을 상대로 하는 일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교회에서 성과가 우선된다면 그 일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표면적으로는 일을 완수하더라도 마음을 다쳐 실족할 수 있다.

목회자는 일을 지시하는 대신, 성도들을 돌보며 그들의 사역을 지원해줘야 한다. 목회자가 교회의 조타수를 내려놓고 지원하는 리더가 될 때, 함께 승선한 많은 성도들은 사역을 보다 창조적으로 이뤄내게 될 것이다.

캣멀의 리더십을 높게 평가한 디즈니(Walt Disney Animation Studios)는 2006년에 픽사를 전격 인수하고 캣멀에게 디즈니와

일에 집중 말고 사람에게 집중해서 공동체 부족 부분 채우는 것에 중점을 목회자는 일을 지시하는 대신 성도들을 돌보며 그들 사역을 지원해줘야

사로 성장했던 많은 회사들이 어느 순간 난관에 부딪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면서, 픽사가 동일한 전철을 밟지 않기를 원했다.

캣멀은 자신이 가졌던 고민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던 중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됐다. 바로 아이디어보다 사람에게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캣멀은 리더는 “팀을 잘 이해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어디에서 실수하고 어디에서 성공하는지 파악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말한다. 일에 집중하지 않고 사람에게 집중해서, 공동체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창조적인 일들은 수많은 선택

의 가치와 잠재적인 아이디어가 엮인 퍼즐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올바른 답을 얻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창조적인 집단의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올바른 선택을 위해 아이디어를 뒤엎을 수 있는 시선야 갖춰져야 한다. 그리고 리더는 사람들이 창조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지시자’가 아닌 ‘지원군’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지원군’ 리더십은 선박 엔지니어의 역할에 비유할 수 있다. 리더는 배의 조타수를 잡지 않는다. 대신에 갑판 밑을 돌아다니며 물이 새는 곳이 없는지 점검하고, 피스톤을 교체하고, 윤활유를 뿌린다. 선박의 진행 방향을

결정하는 대신, 선박이 전체적으로 문제없이 운항 할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들을 돕는 것이다. 목회자는 지시자가 아닌 지원군이 되어야 한다.

교회의 많은 일들은 성과로 판단하기 어려운 일들이다. 교회는 일반 회사와 같이 과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결과로 판단하고 성과를 최우선으로 할

픽사의 운영을 맡겼다. 이는 1990년대 황금기를 구가하던 디즈니가 창의력의 불모지가 되고 고전을 면치 못하자, 디즈니의 CEO인 밥 이거(Bob Iger)가 변화를 위해 내린 용단이였다.

업계에서는 논리적인 이유를 들며 디즈니와 픽사의 조합이 실패할 것이라 장담했다. (3편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춘 ■ 편집국장: 유원정	
·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Tel: (323) 865-0009 (대 표) (323) 865-9025 (광고국) Fax: (323) 865-0056 (편집국) (323) 865-0046 (광고국) E-mail: lachpress@gmail.com		·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Tel: (718) 886-4400 (대 표) (718) 886-4424 (편집국) Fax: (718) 886-0074 (대 표) E-mail: nyc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 (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 (every Saturday) 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음악대학 및 대학원

(BM, MM, DMA 학위과정)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교수진! 실기 일대일 교육, 100% 온라인 이론 강의!

<p style="text-align: center;">(이)</p> <p style="text-align: center;">인터넷이 되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든</p> <p style="text-align: center;">CAMS 시스템을 통하여 100% 온라인 음악 강의를 실시되고 있으며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교수진들의 최고의 강의를 수강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U)</p> <p style="text-align: center;">최고의 교수진</p> <p style="text-align: center;">유럽과 미국에서 최고의 기량으로 각 음악실기 분야에서 탁월한 리더십을 갖춘 교수들로부터 일대일 실기 실습과정이 on and off line 에서 이뤄지고 있다</p>
--	--

세계 음악지도자 발굴과 양성을 위해 Missouri주 Wentzville에 32년의 전통을 지닌 Midwest University의 교수들은 유럽 및 미국의 우수 음대대학원 음악박사 학위자들로 각 영역에서 최고의 기량과 리더십으로 겸비된 연주자들로써, 현재 지도를 받는 학생들 가운데엔 한국 예술종합학교, 이탈리아의 Giovanni Paisiello Conservatory, 독일의 Hochschule für Musik Karlsruhe, 미국의 Manhattan School of Music, Johns Hopkins Peabody Conservatory, The Juilliard Music School 출신자가 있다.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 학사 Bachelor of Music 129 학점
- 석사 Master of Music 48 학점
- 박사 Doctor of Musical Arts 60 학점
- 전공: 피아노, 음악코칭, 성악, 지휘, 작곡, 현악, 관악기, 음악융합예술

모집기간

2018년 7월 13일까지

지원자격

- 학부: 고등학교 졸업자 혹은 동등 학력자
- 대학원: 음악대학졸업 (Musical Arts Convergence 전공은 음악교육대학 졸업자도 가능) 혹은 동등 학력자
- 박사: 학부와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음악을 전공한 자

학위 취득방법

- 미국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SEVIS I-20 혹은 J-1 Visa
- 직장, 사역을 떠나지 않고 어디서든지 세미나, 소집특강, 온라인으로 학점 취득
- 영어, 한국어, 중국어 언어로 학점 취득 가능

Midwest 음악동문

구두회박사 (前 숙대 음대 학장), 황병덕박사 (前 연대 음대 학장), 박재호박사 (前 한양대 교수), 윤학원박사 (前 중앙음대 학장), 전희준박사 (前 찬송가총회대표) 등 일반 음대교수 수십명이 활동중이다.

입학, 편입, 유학 등 자세한 문의는 미국본교 (636)327-4645 usa@midwest.edu / 입학상담 Dr. Dae Kim (dgkim@midwest.edu) / 등록상담 Mr. Jay Ham (muadm@daum.net)

Midwest University

www.midwest.edu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

Washington DC Campus

5103-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Tel: (571)730-4750 / Fax: (571)730-4751

E-mail: wdc@midwest.edu

종교자유, 하나님이 주신 보편적 진리

(1면에서 계속)

그러면서 "단지 성경책을 소지한 것만으로 사형죄에 해당하고, 정권에 의해 기독교도로 규정되면 처형당하거나 가족과 함께 강제 노동 수용소로 보내진다"면서 "변장하는 한국의 기독교 사회와 대조적으로 기독교인에 대한 북한은 박해는 지구상에 필적할 곳이 없다"고 지적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정부와 종교 지도자들이 "특정 신앙과 신념"을 지닌 사람들에 대한 종교의 자

유와 그들이 신앙에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기본적인 인권이라는 점과 종교의 자유가 있는 국가들에 흘러 들어가는 경제적 이익 사이의 깊은 연관성을 본다"면서 "우리는 이 연관성이 미국의 외교정책으로 하여금 종교의 자유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트윗을 통



해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촉진시키는 나라들일수록 번영하고 평화롭다"고 밝히, 향후 미 국무

부 중심으로 국제사회 종교의 자유 증진을 위한 정책과 지원이 계속될 것이라고 있다.

소망 칼럼

근면하라, 열심히 일하라



박재호 목사 (브라질 새소망교회)

사람이 정직과 근면이 없는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없다. 그러기에 프랭클린은 "정직과 근면은 당신의 영원한 반려자로 만들라"고 하였다. 존슨은 "근면과 성실이 있으면 불가능한 일은 거의 없다"고 하였다. 비스마르크는 "청년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단 세 마디 뿐, 일하라, 좀 더 일하라, 끝까지 일하라이다"라고 했다.

이태리 속담에 "근면은 행운의 어머니다"라고 했다. 감신정변의 행동 대원이었던 이규암은 "조선인 2천만 명 중 10만 명이 일하고 나머지 1천9백 90만이 놀고 있으니 가난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로 조선인들의 형편이 낮은 근면성을 평가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후서를 기록한 목적은 현실 생활은 등한히 하고 예수님의 재림만을 기다리던 당시의 데살로니가교회 교인들을 일깨우기 위함이었다.

열심 있는 신앙은 결코 현실에서 동떨어진 종교적인 황홀경이나 환상에 도취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재림의 때와 기한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행1:7)이라는 말씀은 신앙인일수록 미래보다 더욱 현실생활에 충실할 것을 강조한 것이다.

오늘이 미래라는 말이 있다. 미래를 위하여 오늘을 근면 성실하게 일하게 살아야 한다는 뜻이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교회의 교인들에게 말로 써만 아니라 자신이 힘써 밤낮 일함으로써 근면의 모범을 보였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도 자신의 생계를 위해 천막 만드는 일을 계속하였다. 일하지 않고 먹고 산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하나님이나 사람 앞에서 뿐 아니라 음식을 앞에 두고도 떳떳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바울은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고 했다.

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목적이 단순히 먹기 위한 데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일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 일하는 기쁨과 더불어 일한 후에 잔잔한 파도처럼 밀려오는 성취감과 감미로운 쾌감을 일을 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셨다. 예수님은 일에 대한 의무 때문만이 아니라 일한 후의 성취감과 감미로운 쾌감의 기쁨도 아셨기에 일을 즐기셨던 것이다. 휴식과 행복은 누구나 갈망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일하는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달콤한 열매이다.

근면의 대가는 최상의 기쁨이다. 성실하게 일하는 자는 행복한 사람이다. 지금 나는 일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스스로 반성해 보아야겠다. 저와 여러분이 근면과 열심히 일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기 바란다. 항상 부지런히 성실하게 기쁘게 일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한다. 우리가 지금 무슨 일을 할 수 있음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행복임을 깨닫게 되기 바란다.

특히 음악을 하는 사람은 근면과 열심과 끈기가 있어야 한다. 피나는 연습이 없이는 자기가 타고난 재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유명한 폴란드 피아노 연주자인 루빈스타인은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나 자신이 그 사실을 느끼게 되고, 이들을 연습하지 않으면 친구들이 눈치챈다. 만약 사흘을 연습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느끼게 된다"고 하였다.

각 교회의 찬양대원들은 근면과 열심 있는 사람, 끈기와 인내의 사람이 되어서 찬양 연습을 더욱 부지런히 하기 바란다. 찬양이 마음속 깊이 영혼에 녹아져 내리도록 연습을 하기 바란다. 가사와 곡이 완전히 소화되고 머리에 입력이 될 때까지 연습하고 또 연습할 수 있기 바란다. 모든 단원의 목소리가 한 사람의 목소리처럼 화음이 되어 들릴 때 까지 연습을 중단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nammicj@hanmail.net

교회 재정관리, 건강하고 투명해야

(1면에서 계속)

필자는 누군가 복도에서 수표를 주려고 할 때 조심한다. 그럴 경우는 급히 재정위원회 누군가나 경영 관계자를 찾는다.

절대로 수표에 서명하고 싶지 않다. 목회자로서, 우리는 '정말 흠잡을 데 없는 상태'로 남아 있어야 하고, 특히나 재정 분야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다. 이는 외관상 그렇기도 하고, 우리 자신의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서기도 하다. 돈의 영역에서 유혹은 우리 모두에게 실로 거대하다.

재정 통제

교회가 지출하려는 예산을 유일하게 결정하는 사람이 목회자일 경우,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첫째, 훌륭한 제안들이 떨어져 나간다. 협동이 대부분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접근 방식이지만, 특히나 다른 사람들의 돈, 즉 하나님의 돈을 지출하는 데 더욱 그러하다.

둘째, 목회자의 권력이 너무 커진다. 돈은 경영의 세계에서도 교회의 세계에서도, 권력이다. 목회자는 스스로 그러한 책임의 짐을 질 필요는 없다. 마지막으로,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조직, 목회자, 심지어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게 된다.

목회자는 아무도 동의하지 않는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 때 문제가 시작될 것이다. 꼭 기억해야 한다. 신뢰받는 사람들이 재정을 운영하게끔 해야 한다.

돈에 무관심함

교회가 사람을 양육하려고 한다면, 돈 문제를 피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처리하실 수 있기 때문에, 목회에 투자하는 것만큼 큰 문제는 아니다. 만약 목회자가 자신이 목회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따른다면, 하나님께서 투자하실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들을 제자로 이끄는 문제다. 알다시피, 하



나님이 재정을 통제할 때야 사람의 마음을 충분히 가지신다. 목회자들은 이를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재정의 불투명

모든 것을 말해야 한다.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는 세부 사항을 공유할 필요는 없지만, 사람들이 질문할 때 어떤 비밀도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사람들이 교회의 일반적 재정 사업을 잘 모르면 위험하다.

최근 필자는 심각한 재정 문제에 싸여 있는 교회에 대해 들었지

만, 목회자와 경리 외에 교회에 아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다. 나중에 이 사실이 밝혀졌을 때, 분노와 좌절, 상처와 같은 극명한 파문이 있었다. 만약 사람들이 미리 현재 상태를 안다면 대개 이런 감정은 피할 수 있다.

돈은 모든 교회, 즉 우리 모두에게 큰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나 자주 돈 문제를 분명히 다룬다. 목회자로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이 중요한 문제에 있어 교회를 현명하고 부지런히 이끌어야 한다.

'지시자' 아닌 '지원군' 목회자가 되라!

(2면에서 계속)

그러나 결과는 완전히 달랐다. 컷벨은 임원이 주도권을 갖고 있던 시스템을 완전히 뒤엎고, 창조성의 원천을 임원이 아닌 감독의 손에 맡겼다. 임원이 일을 할당해주는 시스템에서, 감독이 스스로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추진하는 시스템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임원들은 의사를 결정하는 상급자의 역할을 내려놓고,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감독과 팀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 결과 디즈니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게 됐다. 체질개선에 성공한 디즈니는 서서히 예전의 명성을 회복하게 됐다. 특히 2010년 이후 디즈니는 "라퐁젤(5억 9100만 달러의 흥행실적)", "겨울 왕국(12억 달러)", "주토피아(9억3100

만 달러)" 등의 영화를 통해 많은 성공을 거두게 됐다. 지원군 리더십이 디즈니의 창조성을 되살리고 '지속 가능한 집단'이 되도록 만든 것이다.

픽사의 복도에는 몇 가지 구호가 붙어 있다. "나보다 똑똑한 사람을 고용하라." "일찍 실패하고, 자주 실패하라." "모든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경청하라." "문제와 직면하라." "좋은 아이디어보다는 좋은 사람들에게 투자하라." 생각과 마음이 열려있는 픽사의 지원군 리더가 팀원들과 함께 나누는 원칙들이다.

혹시 교회에서 나보다 똑똑한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성도들의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차가운 리더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는가? 주위의 아이디어에 귀 기울



이지 않고, 문제를 회피하는 리더가 되고 있지는 않는가? 사람보다는 사역에 집중하는 지시자가 되고 있지는 않는가?

목회자는 교회의 지원군이 돼야 한다. 교회가 '지속 가능한 집단을' 이 때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사역의 조타수를 내려 놓아야 한다. 그리고 사역보다 성

도들을 먼저 살피며, 그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목회자가 지시자가 아닌 지원군이 될 때, 교회는 보다 창조적인 사역 공동체가 돼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는 귀한 그릇으로 쓰임 받게 될 것이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생모집

www.rptseast.org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학교안내

본 신학교는 미주에서 가장 큰 한인 장로교 교단이며 북미주 보수 장로교 및 개혁교회 협의회(North American Presbyterian and Reformed Council)의 정회원인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 신학교로 성경 영감과 절대 권위를 신조로 삼고 개혁주의 신학훈련을 통하여 복음적 목회자를 양성하는 정통적 보수 신학교입니다. 역사적인 21세기를 맞이하여 개혁운동을 통하여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고자 하는 사명감에 불타는 신실한 일군들을 양성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특전

- 국내외 저명한 교수진 확보
- 성적우수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특히 목회자, 선교사적 사명감이 투철한 자에게는 선별 심사후 장학금을 지급함)
- 6만여권의 한글, 영문 신학장서를 소장한 도서관이 있음
- 목회학 석사 졸업자는 총회 목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음
- 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여전도사는 본 교단 산하와 그외 기관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음

2018년 가을 학기 주.야간 모집학과

대학부	신 학 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선 교 학 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대학원	목 회 학 석사	3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기독교교육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선 교 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여교역학과	3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제출서류

- 1 입학원서(본교 소정 양식) 1통
- 2 당회장 또는 목사 추천서 1통
- 3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 증명서 각 1통
- 4 신앙고백서 1부
- 5 명함판 사진(2"×2") 2매
- 6 입학 전형료 30불

원서교부 및 접수

- 1 원 서 교부처 : 신학교 사무실(퀸즈장로교회 내 2층)
- 2 원서접수마감 : 2018년 8월 31일(금) 오후6시
- 3 입 학 시 험 : 2018년 9월 1일(토) 오전11시, 면접 오후 2시
- 4 개 강 부흥회 : 2018년 9월 4일(화) - 9월 6일(목) 저녁 8시
- 5 문 의 처 : Admission Office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463-7163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장 김성국 박사

목양칼럼

한평우 목사
(로마한인교회)



목숨 걸고 스승을 쫓은 디도

수년전 아테네에서 유럽 목회자 세미나를 마친 후 크루즈를 타고 그레테를 방문했다. 처음 방문하는 길이었으며, 또한 크루즈를 타는 것도 처음이었기에 호기심이 컸다. 사람은 누구나 처음 경험하는 일에는 흥분과 호기심이 함께 하는 법이다. 크루즈는 몇 층, 그리고 어떤 위치에 있는 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다고 한다. 좀 더 많은 것을 경험해보자

밖을 볼 수 있는 창문 있는 방을 선택했다. 그러나 저녁 8시에 떠나는 편이었기에 기대와는 다르게 운동 칠 혹은 같은 깜깜함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었다. 창문 있는 방은 환할 때 밖의 풍경을 즐길 수 있지만 밤에는 전혀 소용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경험하고 또 배워야 하니 얼마나 더 배워야 할까?

보통 이런 배는 침대칸에서 깊은 잠을 자고나면 목적이에 도착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그 큰 배를 타고 8시간이나 가야 도착할 정도로 그레테는 멀리 떨어진 섬이다. 이런 여정을 통해 도착한 그레테는 큰 섬이었다. 이곳의 지명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살모네와 라세아와 비닉스 항이다. 이곳을 전도자들이 2천년 전에 작은 배를 타고 드나들었으니 참 대단하다 싶다. 아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렇게 멀리 떨어진 섬에 처음 도착한 사람은 누굴까 싶다. 또 어떻게 육지에서 크루즈로 8시간을 가야 할 정도로 먼 섬을 어떤 경로를 통해 이곳에 주민들이 도착했을까? 처음 이곳에 주민이 살게 된 때는 BC 8천년전이고, 그때 미노아 문명이 일어났다고 한다. 그 후 BC 1800-1500년경에 크레타 문명이 꽃을 피웠고, 이 사람들에게 의해 헬레셋에 철기 문화를 수출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내륙을 가로질러 선교 탐방을

하였다. 특히 라세아 항에서 바라보는 바다는 2천년 전에 사도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이곳을 지나갔다는 역사적 사실을 가슴에 묻고 방문자들을 침묵으로 맞이하였다. 그곳에서 점심을 먹고 디도가 사역한 지역을 탐방하였다. 현재 그곳에는 거주하는 사람이 없고 디도의 교회만 유적으로 쓸쓸하게 남아있었다. 한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드나들며 복음을 들었을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찡하다. 그곳을 본 후 숙소가 있는 시내로 돌아와 디도의 기념교회를 탐방하였다. 그 교회 역시 아름답게 치장하고 있다. 제단 앞 편에 화려하게 치장한 유리 돔 안에 디도의 유골함이 모셔져 있었다. 디도서 12절에, '그레테인 중의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테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는 말씀이 떠오른다. 그만큼 젊은 디도가 그레테에서 사역하는 일이

힘들고 어려웠겠다 싶다. 학자들마다 약간씩 다르겠지만 톨슨은 66년 초에 디도서를 기록했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그가 마지막으로 기록한 것이 디모데후서인데 그 직전에 기록한 서신이 디도서다. 딤후 4:9-13절의 말씀을 음미하여 보았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리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짐짓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디도를 달마디아로 보냈다고 했는데 달마디아는 지금의 유고슬라비아를 의미한다. 디도 3:12, "내가 아테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 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

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느니라." 이 때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나온 후의 일이라고 어느 성서학자는 밝히고 있다. 바울은 그레테에서 사역하는 사랑하는 제자 디도를 니고볼리로 불러냈다. 바울은 디도를 니고볼리로 불러 겨울의 몇 달을 함께 보내고 싶어 했다. 그만큼 바울은 디도 보기를 소망했다는 의미다. 세상에서 누군가로부터 만나고 싶어 하는 대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큰 복이다. 바울은 디도를 지극한 마음으로 아끼었다. 고후8:23,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는 바울에게 고린도교회의 상황을 보고하기도 했고(고후7:5-7),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모금을 위해 고린도에 가기도 했다(고후8:6-24).

(9면으로 계속)

푸/른/초/장

장용호 목사
(아이다호한인장로교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 가운데 있는 말씀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도덕윤리를 선행 양심으로 지키며 살아야 함을 강조하시는 것이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는 달라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말한다.

리사도인들은 제도적이고 실천적인 사회 정의의 책임을 다하라는 말씀이 된다. 아모소서 5장 24절 “

고 맹세하신 것이다.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

을 받고 내적 본질이 바뀌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셨다. 성령을 주셔서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겔 36:37). 그러면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요14:21). 왜 그리스도인들을 소금이요, 빛이라 하는가? 소금은 모든 음식에 들어간다. 만일 소금이 없으면 음식을 삼킬 수가 없다. 그렇듯이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곳에 반드시 있어야 할 존재라는 것이다. 또한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다. 어둠은

고, 물건을 살 때에 지나치게 깎지 말라는 것이다. 도덕과 윤리를 선행 양심으로 지켜야 함을 말한다. 결론 하나님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이며, 그 속에 진리가 없다고 한다. 즉,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도”(요일2:4)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는 의식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풍족히 채워주신다고 하셨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 6:33).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자가 소금이요, 빛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정의를 세상에 알리게 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자가 되고, 또한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하는 자가 되어 약속한 복을 받는 자리로 가게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약속한 계명을 지켜서 복 받고 살자는 말씀이다. nybabo@gmail.com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마태복음 5장 13-16절)

그 다음은 무엇인가? 유대인들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를 좋아한다. 그리고 자신의 의가 기준이 되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였다. 반면에 이방인들은 주술적인 행위를 좋아하였다. 의식을 행하며 반복적인 주문을 외워서 무아지경에 이르는 무속신앙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사람들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어 영광을 올려야 하는 책임을 강조하시는 말씀이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의로움이라는 단어에는 정의(체다카)와 공의(미쉬파트)가 있다. 정의는 하나님의 정하신 마음과 뜻이다. 반면에 공의는 율례와 법도를 행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펼쳐지는 것을 말한다. 교회와 그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는 말씀과 연속적이 되는 것이다.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강조한다. 가난한 자의 것을 삼키려 하지 말고, 땅이 없어 종으로 사는 자들의 임금을 착취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곡식을 담아 파는 되나 저울을 속이지 말라는 것이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을 여호와와 이름을 걸

을 불순종하고 우상숭배를 하였다. 둘째는 사회 정의를 세우는데 실패를 하였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나? 실패한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회 정의를 세우지 못한 백성들의 마음을 고쳐서 하나님의 의를 세상에 알리시기 위함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짓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 속에는 성령이 없다는 결론이 이르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행위연약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는데 하나님의 계명과는 전혀 상관없이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달리 말하면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진정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

죄악의 세력을 말한다.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에는 죄가 머무를 수 없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계명으로 사회정의를 지키는 것을 공의라 하고, 공의가 시행됨으로 인하여 정의인 하나님의 정신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우리들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곳에서 나타내야 한다. 약자를 억압하고 헐박하지 말고, 저울이나 되박을 속이어서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지 말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터 GPS CENTER

도서안내

- 하나님의구원계획 10권
- 성경도표
- 다니엘, 계시록(상,하)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책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책
- 구약, 신약, 사도행전 DVD
- 다니엘계시록 DVD
- 70이레, 최고의 복, 계 1:7 DVD
- (영어책)구약, 신약, 70이레
- (중국어책)하나님의구원계획 4권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POWER POINT)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POWER POINT)
- 하나님의 구원계획(POWER POINT)



하나님의 구원계획 성경공부를 인도하실 사역자들은 소정의 교육(7시간)후 POWER POINT와 모든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뉴욕제자들과(917)588-2934 / (917)968-1024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27-23 Bayside Ln, #1FL, Flushing NY 11358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

종말시대 현상

종말시대를 지나면서 사람들의 삶이 점점 더 강력한 이기적 개인주의로 무장하는 것을 보게 된다. 항상 자기 자신이 기준이다. 어떤 사람의 친구를 보면 둘의 유사점을 발견한다. 교제 안에서 인품과 성향이 유유상종 하게 된다. 그래서 어떤 부모는 자식의 잘못을 아이 친구의 탓으로 돌리는 것을 보게 된다. 자기 자식은 귀하고 좋은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 자기중심적 해석일 따름이다. 친구 때문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면, 자신의 자녀가 그렇게 훌륭하고 똑

되었다.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새로운 변화의 인생을 능히 살 수 있음을 증거 하는 일이다. 나이가 들수록 완고해지는 법인데 아브라함에게는 선물 같은 은혜가 머물고 있었음을 알게 한다.

반면에 베드로는 안드레의 전도를 받았으나, 먹고사는 문제로 인해 따르지 못하였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빈 배를 내어 달라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빈 배뿐 아니라 인생의 그물을 내리게 된다. 구원의 주님을 영접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의 진정한 변화는 훨씬 뒤에 나타난다. 주님 승천하신 후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 되어졌다. 왜 그렇게 늦어졌을까? 여전히

믿음이란, 말씀을 기억할 뿐 아니라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신뢰하는 영역까지 가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작은 아들에 대한 집착 같은 사랑과 이 사랑을 뒷받침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데 힘을 얻어 자기 생각에 기초한 자기 방법, 자기 방식대로 말씀을 이루려 했다. 그 결과 야곱과 리브가는 헤어져서 생전에 아들의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하게 되었다.

야곱도 마찬가지이다. 이미 팔족 사건을 통해서 장자권에 대한 축복을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지 못했던 그는 그 순간에도 어머니 리브가의 생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된다. 결국 고난으로 가득 찬 인생의 길이 시작이 된 것이다. 이와

를 다니고 교회에서 말씀을 공부 하면서 아버지를 닮지도 않고 어머니를 닮지도 않고 주님을 닮은 인생이 되었다. 열심히 공부도 하고 종교고 시절에는 리더십을 배우고 발휘했다. 후에 주지사가 되고 대통령이 되어서는 그 어머니가 재혼하여 낳은 이복동생들까지 돌아보는 사람이 되었다. 대통령 시절의 추문의 실수가 있었지만, 그의 삶 전체를 아는 사람들은 달리 평가한다. 최소한 그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그토록 지독한 환경 속에서도 그것을 핑계하지 않았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오늘날 부모를 잘못 만나고 결혼 가정이어서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생각을 해 보라.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성지 예루살렘 순례를 계획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기독교와 유대교와 이슬람의 3종교의 성지인 예루살렘은 UN도 예루살렘의 소유는 어느 누구도 가지 못한다고 주장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에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말하고 미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대해 성경의 역사적인 배경을 알고 싶습니다.
-토렌스에서 김 권사

A: 예루살렘은 히브리어의 뜻으로 '평화의 도시'란 뜻이고 옛 이름은 '샬렘'(완전)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 그 왕은 창세기 14장 18절을 보면 아브라함 시대에 샬렘 왕 멜기세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이 지역인 모리아 산에서 독자 이삭을 바친 경험에서 그 지역을 여호와 이레라 불렀습니다. 학자 크루텐에 의하면 그 '이레'와 원래의 이름인 '샬렘'이 합하여 예루살렘이란 이름이 된 것입니다. 그 원주민의 이름을 따서 여부스라 하였고 그곳 산 이름을 따서 역대상 11장 5절에는 시온이라 불리웠습니다. 예루살렘은 원래 가나안 7족속중 하나인 여부스 족속이 오래 전부

다윗왕 때 정령해 3천년간 행정수도였다가 1967년 6일전쟁까지 1800년간 팔레스타인

터 그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부스 족속은 사사기 19장 10절을 보면 "곧 예루살렘"이라고 했고 역대상 11장 4절에는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토인이 거기 거하였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란 이름은 이스라엘족속이 가나안에 오기 전부터 그렇게 불리고 있었습니다.

여부스 족속의 성읍인 예루살렘은 여호수아 18장 28절을 보면 여호수아 시대에 베냐민 지파의 기업 중에 하나로 주었으나 베냐민 족속들이 여부스 족속을 두려워하여 감히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은 남쪽과 동쪽의 성벽은 절벽과도 같은 가파른 언덕에 세워져 있었고 주변에는 외적의 침입을 막아주는 골짜기들이 있어 난공불락의 도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예루살렘은 여호수아시대에 점령되어야 할 지역이었습니다. 그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약속을 믿지 못한 베냐민 사람들의 용기와 믿음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를 거쳐 사울 왕 때까지 여부스 족속은 점령되지 못하고 그 예루살렘지역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을 보면 다윗은 통일왕국의 왕이 되자 제일 첫 번째 한 일이 이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기 위해 여호수아시대부터 쫓아내지 못한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루살렘을 행정적 정치적 수도로 정하고 언약궤까지 옮겨 종교적 중심지로 삼았습니다. 그 후로 3000년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요 유대인들의 마음의 고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평화의 도시인 예루살렘은 죄로 인해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과 그 성전이 불타고 나라는 망하였고 로마 지배시 두 번째 지은 예루살렘 제 2성전도 주후 70년경에 디도장군에 의해 다 부서지고 예루살렘안의 110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음을 당했고 노예로 끌려가고 전 세계에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그 지명이 팔레스타인으로 이름이 바뀌고 1800년 동안 로마인, 회교도 등 이방인들에게 짓밟혔습니다. 그러다가 발포어 선언과 함께 1948년 5월 14일에 UN을 통해 기적적으로 나라가 독립하고 1967년에는 6일 전쟁을 통해 빼앗긴 예루살렘을 다시 기적적으로 탈환한 것입니다.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교회)

말세의 때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기준, 자기생각, 자기중심

똑하고 반면에 남의 자식은 그렇게 못났다면 자신의 자녀가 오히려 선한 영향을 끼치고 함께 변화를 도모할 수는 없었겠나? 하는 것이다.

변화의 어려움

항상 자기를 기준하여 삶을 대하는 이들은 변화되기 어렵다.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는 만남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만남으로 말미암아 선하고 좋은 영향력으로 변화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성령을 만나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변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자기고집 자기 생각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너무 고집이 센 사람,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은 삶 자체가 고난으로 점철될 때가 많다.

75세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 영육 간에 온전한 변화를 나타내며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

자기 생각이 많았기 때문이다. 급기야 주님의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는 주님으로부터 사단이라는 책망의 소리와 함께 제발 생각을 바꾸라는 말을 직접 듣기도 한다. 자기 생각이 앞선 삶을 살았다는 것을 주님의 꾸중을 통해 증명된다.

집착과 고난

이삭이 나이 들어 죽음이 가까워졌을 때, 그는 장자 예서를 축복하고자 한다. 그런데 아내 리브가가 이를 알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생각했다. 작은 아들이 큰 아들을 섬길 것이라는 약속이었다.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복된 일이다. 말씀을 잘 기억하는 분들을 보면, 치매라는 중증이 와도 절대로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런데, 리브가는 말씀에 대한 기억은 좋았으나 이것을 믿음의 영역으로 승화시키지는 못하였다. 자기 생각이 너무 컸던 탓이다.

같이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하고 세면 믿음의 일들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해서 고난의 길을 갈 수밖에 없음을 확인하게 된다.

원망, 핑계, 불평

자기 생각이 충만한 사람들은 대개 원망과 불평, 핑계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한마디로 복 없는 삶을 살아간다.

본 교회가 있는 알칸사는 빌 클린턴의 고향이다. 그가 33세에 주지사를 하고 대권을 향해 나아갔는데, 실제 그의 삶의 환경은 비참하기 짝이 없다. 유복자로 태어났기에 전혀 아버지에 대한 이해가 없다. 어머니는 다시 결혼을 하고 이복동생들을 낳게 된다. 쉽게 말해 인생을 자기 뜻대로 맘대로 살 아도, 핑계할 대담이 아주 많은 그런 무지렁이 인생이 예비된 삶이었다.

그러나 그는 자전거를 타고 교회

자식도 싫으면 내어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부모가 나를 낳아 주고, 나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으로도 감사하고 만족할 수는 없는가? 일찍 남편을 여리고, 힘들고 어렵게 자식을 키우느라 과부의 인생을 살아야했던 그 어머니의 형편과 입장을 헤아리고 알 수는 없단 말인가?

최근에 40대에 혼자되신 분이 80이 되어서도, 50이 된 아들에게 과외공부하나 제대로 시키지 못해 미안하다고 눈물 흘리는 것을 보았다. 자식이 승진에 진출이 낙방할 때마다 어머니는 죄인이 된다. 자신이 남보다 더 공부를 시키지 못해서 그렇다고.

자식들은 하나같이 왜 그렇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지 모른다. 결국은 그것이 그 인생을 망치게 하거나 고난에 접어들게 함을 본다.

<11면으로 계속>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의 새로운 물결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학위과정:

성경사역학철학박사 PhD / 목회학박사 DMin / 교육목회학박사 DEdMin / 목회학석사 MDiv
선교목회학 DMin in Missions
설교목회학 DMin in Expository Preaching

미남침례교단 6대 신학대학원 | 탁월한 교수진 | 저렴한 등록금 | 한국부 517명 재학 | HLC & ATS 정식인가 | 상시입학 | 100% 한국어 강의 | I-20 발행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한국부 사무실
최세롬 사모 816-414-3754; ks@mbts.edu; www.mbts.edu



종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부르키나파소의 리프트코 풀라(LIPTAKO FULA)



수세기전 엄청난 수의 풀라니 종족들이 북아프리카와 중동으로 부터 중, 서부 아프리카로 이주해 왔다.

오늘날 그들의 대부분은 더 좋은 목초지를 찾아 항상 이주하는 준유목 가축 사육자들이다. 사하라 사막은 그들의 최북단 경계를 이루며 쉼 없이 파리(tsetse flies)는 그들의 남방 이주를 제한해준다. 수년에 걸쳐 풀라니 종족의 일부는 전임 목동의 삶에서 벗어나 그들의 공동체 내에서 학문적으로 영

향력 있는 지도자가 되기도 했다. 풀라니 종족은 그들이 사는 지역과 방언, 직업에 따라 분류되어지고 각각 다른 이름으로 불리어진다. 리프트코 풀라니족은 말리종부 마시나(Macina) 지역과 부르키나파소 북부에 사는 풀라니족을 일컫는 이름이다. 그들은 근처의 다른 아프리카 종족들에 비해 더 열은 피부색과 얇은 입술 그리고 더 곧은 머리카락을 가졌다. 이로 미루어 이들의 근원은 백인종일 것으로 추정된다. 언어는 니제르-콩고 언어인 마시나어(Masina)를 사용한다.

삶의 모습

마시나(Macina) 지역의 무더운 열대성 기후는 우기와 건기의 두 계절을 조성해주며 이러한 기후적 조건이 리프트코 사람들의 생활방식을 결정한다. 그들은 농경과 목축을 주산업으로 하는 준유목민들이다. 연중 4개월가량 지속되는 건기 중에 젊은이들은 소떼, 양떼 그리고 염소 떼들을 몰고 양질의 목초지를 찾아 물이 풍부한 평원들을 옮겨 다닌다. 그들은 장대나 나뭇가지를 세우고 지푸라기와 나뭇잎 또는 돛자리로 가려 만든 간이 막사에서 야영한다.

젊은이들이 가축 떼를 몰고 다니는 동안 그들의 아내들과 어린 아이들은 가족의 연장자들과 함께 집에서 머무르면서 채소밭을 돌본다. 다양한 채소를 재배하지만 주된 곡물은 쌀과 수수이다. 말, 나귀, 닭 그리고 개 따위의 가축들도 농가에 함께 산다. 우기철에는 가축들과 가족들은

함께 마을에 머문다. 캠프온드를 구성하는 대가족들이 모여 촌락들을 이루는데, 리프트코 사람들은 휘어지는 장대와 초가지붕을 지지하는 중심 기둥으로 집을 짓고 캠프온드 주위에 가시 담장을 둘러친다. 유목민이든지 정착민이든지 모든 리프트코 공동체는 장로의 감독을 받으며, 장로는 마을 광장의 중앙에 사는 마을 촌장의 자문 역할을 한다.

리프트코 풀라족에게 가족은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 우유와 염소 젖은 식단의 주요 부분이며, 버터를 만들어 시장에서 팔기도 한다. 중요한 축제나 의식이 있을 때만 육류 섭취가 가능하다. 리프트코 사람들은 뿔이 길고 짧은 가축 모두를 사육하며, 양 또한 가축과 양모를 얻을 수 있도록 두 종류의 양을 먹인다. 양모는 주요 교역물이며 소유주의 경제적 지위를 나타내 주기도 한다.

풀라니족에게 있어 무용, 옹골성, 그리고 힘은 중요한 덕목이다. 이것은 "샤로(sharo)"로 알려진 리프트코족의 흥미진진한 춤에 나타난다. 이 춤은 젊은 남자의 성인됨을 시험하는 것이다. 만약 두 젊은이가 한 처녀에게 결혼하기를 원한다면 그들은 돌 중 조금 덜 집요한 구혼자가 제거될 때까지 작대기로 서로 때려야 한다.

신앙

리프트코 풀라니는 거의 모두 무슬림들이다. 이슬람 학교에서 어린 이들에게 종교적 기초를 가르친다. 그러나 장로들은 종족적 가치와 전통을 가르칠 책임을 진다. 장로들은 자기 종족의 이야기들을 후손들에게 전해주는데 풀라니족에게 있어 어린이들은 바로 그들의 미래이다. 그들은 사후 세계를 믿지 않으므로 어린이들이야말로 그들

이 세대에서 세대를 이어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유일한 통로인 것이다. 그들은 자녀들을 통해 그들의 이름과 외양이 유지된다고 믿는다. 아이가 없이 죽는 것은 풀라니에게 있어서는 두 번 죽는 것으로 간주된다.

필요로 하는 것들

이미 리프트코어인 마시나어(Masina)로 번역된 신약성경이 있고, 기독교 방송과 "예수" 영화도 제작됐다. 현재 7개의 선교단체가 리프트코족들 사이에서 일하고 있으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전체의 1%도 되지 않는다. 그들의 삶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이슬람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기 위해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하나님을 증명하고 싶어요" 11살 천재 소년의 꿈

"과학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 보이고 싶어요.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말이예요."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한 열한 살 천재 미국 소년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 보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고 탬파베이타임즈가 최근 보도했다.

주인공은 윌리엄 마일리스, 2년 전 고등학교를 마친 윌리엄은 지난 18일 미국 플로리다주의 세인트피터즈버그칼리지를 졸업했다.

윌리엄은 무신론이나 과학조차 종교처럼 특정한 신념에 기대고 있다고 판단했다. 즉 우주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더 높은 존재(higher power)가 우주를 창조한 것으로 봐야하지 않느냐는 주장이다.

"과학과 종교는 다르지 않아요. 과학은 세상을 설명하는 도구죠. 그리고 하나님의 부존재를 증명하지도 못하고요."

윌리엄은 자신의 말을 이행하기 위해 천체물리학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사우스플로리다대학교에 진학해 박사학위까지 도전할 계획이다.

윌리엄의 부친 피터 마일리스는 팜 하버에서 동방 정교회 사제로 사역하고 있다. 윌리엄은 생후 7개월 만에 완벽한 문장을 말해 주위를 놀라게 했다. 두 살 전후에는 덧셈 뺄셈을 했고 네 살에는 대수학을 배웠으며 다섯 살에 '1000만명 중 한 명 나올 정도'라는 평가와 함께 천재로 인정됐다.

윌리엄은 자신의 재능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는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갖고 있어요. 전 지식이나 과학, 역사에 대한 재능을 받았을 뿐이고요."

세인트피터즈버그칼리지의 톰주어 윌리엄스 총장은 "윌리엄이 해낸 일에 완전히 매료됐다"면서 "윌리엄은 정말 명석하고 개방적이며 협업도 잘한다"고 칭찬했다. 윌리엄을 천재로 판명했던 조앤 투스채츠 전 오하이오주립대 교수는 윌리엄 가족의 자폐 가족력이 윌리엄의 좋은 머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달 성경' 경매 나왔다...

아폴로 14호에 실려 달에 다녀온 성경이 경매에 나왔다. 하나님 말씀을 달에도 전하는 취지로 제작돼 실제 달 표면까지 안착했던 성경이 과연 어느 정도의 가치를 인정받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폭스뉴스는 "아폴로 14호의 달 탐사 미션에 함께 했던 희귀한 성경이 26일 미국 LA의 네이트 샌더스 옥션(Nate D. Sanders Auctions)에 출품된다"고 전날 보도했다. 경매 시작가는 5만 달러다.

일명 '달 성경(The Lunar Bible)'이라고 불리는 성경은 정사각형으로 한 변이 1.625인치(4.1275cm)에 불과하다. 우주여행에 휴대할 수 있도록 마이크로폼 형태로 만들어졌으나 킹 제임스 버전 성경 1245페이지가 모두 새겨져 있다. 현미경을 사용하면 읽을 수 있다.

달 성경은 나사의 우주 프로그램에 종사했던 기독교인들로 구성된 '아폴로기도연맹'(Apollo Prayer League)이 우주에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취지로 제작했다. 아폴로기도연맹은 나사에서 과학자로 근무했던 존 스타우트 목사가 67년 아폴로 1호 승무원 3명이 훈련 중 일어난 화재로 숨지자 이를 기리기 위해 이듬해 조직한 기도 모임이다.

아폴로 14호는 71년 1월 31일 지구의 케네디 우주 센터에서 출발했다.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며칠 뒤인 2월 5일 극적으로 달 표면에 안착했다. 아폴로 14호에는 애초 300개의 달 성경이 실려 있었다. 3명의 우주 비행사 중 달 착륙선 조종을 맡았던 에드가 미첼은 가

방에 이 성경 100개를 넣고 달 표면을 밟았다. 그 중 우주비행사 미첼과 스타우트 목사의 서명이 모두 담긴 11개만 달 성경으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아폴로 13호에 실렸던 성경은 지난해 6만2500달러의 경매가로 팔렸다. 그러나 아폴로 13호는 우주선 고장으로 달 착륙에 실패했기 때문에 해당 성경은 엄밀한 의미에서 달을 다녀온 것은 아니다.

지구로 돌아오지 않고 달에 남겨진 성경도 있다. 71년 7월 30일 달에 착륙한 아폴로 15호의 우주비행사 제임스 어윈은 누군가 성경을 읽어보기를 바라며 달 탐사선인 '로버'의 대시보드에 이 극소형의 성경을 남겨두고 왔다.

크리스천리더들, 터키여행 긴급 폐북 경고문

"터키가 브렌슨에게 안전하지 않다면, 우리에게도 안전하지 않다."



미국의 기독교계 리더들이 터키로 여행을 가지 말아 달라고 호소하고 나섰다. 터키 당국이 미국인 앤드류 브렌슨(50) 목사를 감금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규모 제재를 경고하는 등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미국의 2500만 복음주의자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초당파 기독교 단체인 '마이페이스보우츠'(My Faith Votes-의장 벤 카슨)는 27일 페이스북에 '긴급 여행 경보(URGENT TRAVEL WARNING)'를 띄우고 "앤드류 브렌슨 목사가 풀려날 때까지 터키 여행이나 터키 항공사 이용을 보이콧해 달라"고 호소했다.

마이페이스보우츠는 또 "미 전역에서 사역하고 계신 목사들께선 성도들에게 똑같이 말씀해 달라"면서 "터키 정부에 억압된 미국 시민을 지키기 위해 연대해 달라"고 당부했다.

브렌슨 목사는 2016년 10월 쿠르드 분리주의 무장단체 등을 돕고 간첩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체포됐다. 미 노스캐롤라이나 출신인 그는 1993년부터 터키 서부 이즈미르의 작은 교회에서 사역했다. 브렌슨 목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터키 이즈미르 형사법원은 브렌슨 목사 석방 요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대신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지난 25일 가택연금을 결정했다.

브렌슨 목사는 체포된 이후 무려 50파운드(22.6kg) 가까이 체중이 줄었고 심각한 불안과 우울 증세를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브렌슨 목사는 유죄 판결을 받으면 35년의 징역형을 살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로 통해 "오랜 시간 억류돼 있는 위대한 크리스천인 브렌슨 목사를 터키가 즉각 풀어주지 않으면 미국 정부는 대규모 제재를 가할 것"이라면서 "브렌슨 목사는 큰 고통을 받고 있다. 신념에 찬 무고한 시민을 즉각 풀어주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비공식 신앙 조언자 대변인인 조니 무어(Johnnie Moore)는 가택연금 소식이 전해지자 "터키가 브렌슨 목사에 안전하지 않다면 우리에게도 안전하지 않다"며 터키 여행 제재를 당부하는 등 터키를 압박하고 있다.

브렌슨 목사는 지난 4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내 진심이 모두 밝혀지길 바란다. 난 결코 어떤 불법 행위도 하지 않았다"면서 "난 터키를 헤치는 어떤 일도 한 적이 없다. 난 터키를 사랑한다. 지난 25년 동안 터키를 위해 기도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터키는 그러나 완강하게 저항하고 있다. 레제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의 대변인은 "미국의 위협은 용납할 수 없다"면서 "미국은 자국의 이익과 터키와의 동맹에 더 해를 끼치기 전에 건설적인 방향으로 접근법을 재고하라"고 비판했다.

대한성서공회, 우간다에 성경 1만7122부 기증

대한성서공회는 30일 서울 신촌성경교회(박노훈 목사) 후원으로 아프리카 우간다에 성경 1만7122부를 기증했다고 밝혔다. 신촌성경교회는 2016년 아프리카 가나에 성경을 기증한 데 이어 지난 5월 한 달간 전 교인이 우간다에 성경을 보내기 위해 헌금을 참여, 5가

지 부족어 된 성경을 보내게 됐다. 세계 최빈국 중 하나인 우간다는 20년간 지속된 내전으로 많은 사람이 육체·정신적으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고통받고 있다. 우간다성서공회는 현지 교회와 협력해 어린이와 난민에게 부족어로 된 성경을 보급하고, 말씀을 통해 내전의 상처를 치유하는 사역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4일 진행된 기증식에서 박노훈 목사는 '생명의 말씀'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박 목사는 "에스겔 47장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 모든 죽은 것이 살아나는 환상을 본다"며 "오늘 그와 같이 우간다에 말씀이 이르는 곳마다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믿는다"고 말했다.

유해송환으로 '신뢰적립' 미북, 이젠...

미군 유해송환이 일단락된 가운데, 북미는 6·12 정상회담의 핵심인 비핵화와 대북 안전보장을 논의하는 '본게임'으로 넘어가게 됐다. 정상회담 개최 45일만인 27일, 합의 이행의 실질적인 첫 조치로 이뤄진 미군 유해 송환(55구)은 양측이 신뢰를 쌓는데 도움이 됐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해송환과 관련해 연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감사를 표한 데서 보면 미국은 북한의 '약속 이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자신들의 외교 성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려는 분위기다.

정부 관계자는 28일 "유해송환이 비핵화와는 관련이 없지만 상호 신뢰가 쌓이면 비핵화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니 북미대화의 분위기 조성에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제사회의 관심은 이제 비핵화와 대북 안전보장 제공, 새로운 관계 구축, 한반도 평화체제 등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의 나머지 내용이 언제 어떻게 이행될지에 쏠림 전망이다.

지난 6-7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협의에서 '비핵화 시간표' 등을 요구한 미국과 '선(先) 종전선언'을 주장한 북한 사이에 이견이 확인된 뒤 북미간 수면 위로 드러난 논의는 유해송환 위주였고, 비핵화 등을 논의할 북미 후속 협상은 아직 가시화하지 않고 있다.

그 사이에 북한은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약속했다는 미사일 엔진 실험장 해체 관련 움직임을 보이는 동시에 관영매체를 통해 연일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미국은 최근 후속 협상에 대비하는 한편 대북제재 위반 관련 '주의보'를 발표하는 등 제재의 효용성을 지켜내는데 신경을 쏟고 있다.

앞으로 관건은 종전선언 등 대북 안전보장 조치와 비핵화 조치의 상호 연결에 대한 북미 간 절충점 찾기, 그리고 그것에 바탕을 둔 포괄적 로드맵 조기 작성 여부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북핵 6자회담 참가국(남북한과 미중일러) 외교장관이 모두 초청된 가운데, 내달 4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 북미 대화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전망이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양자 회담이 ARF 계기에 열린다면 종전선언 등 대북 안전보장 조치와 북한의 비핵화 이행 조치의 선후관계 등을 놓고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외교계는 보고 있다.

북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향후 협상의 발판이 마련될 경우 폼페이오 장관이 이달 방북 협의 후 거론한 양측간 '워킹그룹' 회의가 뒤이어 개최됨으로써 비핵화와 대북 안전보장을 주제로 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성경 필리핀 주재 미국 대사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계속 실무협상 대표로 나설지 관심이 모으는 가운데, 미국은 대북 협상에 대비한 범정부 차원 진용 구축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성원 국립외교원 경제통상연구부장은 2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북한과 미국은 비핵화와 대북 체제보장과 관련, 어느 쪽이 먼저 조치를 취할지에 대한

순서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며 "양측은 상호 신뢰 구축 조치를 취하면서 비핵화와 체제보장 조치를 순차적·동시적으로 이행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조성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종전선언은 북한이 핵시설 동결 정도는 해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ARF 계기에 미국은 중국을 종전선언의 참가자로 받아들이고, 대신 중국은 적극적으로 대북 설득에 나서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시나리오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온 1도 오르면 자살률 2.1% 높아져"

기온이 섭씨 1도 상승할 때마다 자살률이 0.68%에서 2.1%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새로운 연구결과가 나왔다. 기후변화로 인한 고온 현상이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밝혀낸 것이다.



마셜 버크 미 스탠퍼드 대학교 지구시스템과학과 교수 등은 미국과 멕시코에서 예년과 달리 기온이 높았던 시기에 자살률도 오르는 경향을 보였다고 23일(현지시간) 국제 학술지 '네이처 기후변화(nature climate change)'에 발표했다.

연구는 미국과 멕시코의 수십년에 걸쳐 수집된 기온과 자살률에 대한 통계를 비교 분석하는 방법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미국은 월 평균 기온이 섭씨 1도 올라갈 때마다 자살률이 0.68%, 같은 조건에서 멕시코는 2.1% 높아졌다. 미국의 경우 1968년부터 2004년까지 스스로 목숨을 끊은 85만1088명, 멕시코는 1990년부터 2010년까지 61만1366명에 대한 데이터에 근거한 결과다.

연구 과정에서는 빈곤 수준, 계절성 우울증, 모방 자살을 초래할 수 있는 유명인의 자살 등도 고려됐지만, 그러한 변수와 관계없이 기온상승이 더운 시기에 자살률이 증가했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버크 교수는 "기온과 자살률 간 상관관계를 알아내는 것은 중요하다"며 "자살은 모든 종류의 폭력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사망자를 내고 전 세계에서 사망 원인 중 10-15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근 지구 온난화의 여파로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되는 기록적인 고온현상에도 우려를 표했다. 버크 교수는 "기후변화 때문에 자살률이 약간만 올라도 건강에 대한 국가적 부담이 커진다"며 "특히 상대적으로 높은 자살률을 보이는 잘 사는 나라가 더 큰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폭염이 지속되면 SNS상에서 우울함을 표출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점도 드러났다. 해당 연구팀이 2014년 5월부터 2015년 7월까지 트윗 6억2천개를 분석한 결과, 월 평균 기온이 1도 오르면 '우울한' '외로운' '자살'과 같은 부정적인 단어가 0.36-0.79% 더 많이 언급됐다. 또 기후 변화로 인한 기온 상승이 지속되면 미국과 캐나다에서만 지금보다 자살이 9000-4만 건 더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실업률이 1% 올라갈 때 일어나는 자살보다 높은 수치다.

올 여름 지구촌 곳곳 폭염 왜...?

올 여름 북반구 거의 모든 나라에서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사상 최악의 가뭄과 사망자가 속출하는 등 지구촌이 신음하고 있다.



북극권에 속하는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기온이 30도를 넘었고 독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캐나다, 일본 등 곳곳에서 연일 최고 기온을 경신하며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

노르웨이와 핀란드 등 북극권 국가의 한낮 기온이 33도를 넘나들고 있고 러시아 시베리아 지역도 30도가 넘는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독일에서는 불볕더위로 공황 활주차가 변형돼 이용이 중단되는 사태도 벌어졌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데스밸리는 낮 최고 기온이 52.7도를 기록하면서 102년 만에 최고기온을 경신했다. 로스앤젤레스 외곽에서도 48도가 넘는 기온이 관측됐다. 캐나다에서도 동부 퀘벡주에서만 7월 한달 동안 9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순수한 신앙

수도원 운동은 초대교회에서 시작되었다. 4세기, 콘스탄틴 대제에 의하여 극심한 박해와 고난의 시기가 마감되었다. 자유로운 환경에서 공개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기에, 이런 변화는 성도들에게 큰 축복이었다. 그러나 순교의 각오로 신앙을 지키던 신앙인들의 모습이 사라지게 되면서, 초대교회는 급작스런 영적 쇠퇴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때 사막과 들판을 고독하게 찾아다니며 고행과 명상으로 영적 각성을 채우던 사람들이 생겨났다. 초기에는 사명을 느꼈던 개인들의 독자적이며 산발적인 움직임이었으나, 후에는 그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작은 집단을 이루어 지내게 되었다.

그들이 바라보는 교회의 모습은 어떠하였을까? 날이 갈수록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로마제국의 황제들의 탄압을 받던 긴 시간 동안 교회는 순수성을 유지하고 있었다. 성도들의 삶을 가능하게 하였던 것은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였다. 이 세상의 기준으로 무언가를 얻기 위해 신앙을 선택할 환경이 아니었다. 불로 연단을 받는 동안 참된 성도들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었다.

'종교의 자유'가 의미하는 것은 '자유로운 신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교회는 더 이상 '신앙'을 가진 소수가 아닌, 신앙 이외에 다른 동기를 가지고 '교회'에 출석하는 다수의 모임으로 전락되어갔다.

특히 로마제국의 황제가 기독교를 중시하고 기독교인들을 우대하는 세상이 되면서, 출세를 하려면 교회에 나가야 한다는 의식을 갖게 되었다. 그 결과 거듭남에 대해 관심이 전혀 없는 자들이 교회에 관여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영적 질서에 순복은커녕, 자신의 본성과 세상의 기준을 교회 공동체 안으로 끌어들이었다.

수도사들은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는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며 매우 안타까워했다. 그들은 이전에 비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이 모이고 커져가는 교회의 모습을 씁쓸하게 바라보았다. 적어도 자신들만은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그리스도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을 만한 자세를 버리지 말자고 다짐하였다. 엄격한 규율 하에서 함께 생활하며 순수한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였다. 수도원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끝없는 표류

게르만족의 이동은 중세를 시작하던 시기에 유럽 사회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프랑크 왕국이 세워지면서, 교회는 정치의 힘을 통하여 확고부동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명실공히 기독교는 유럽의 종교가 되었다. 2천년의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매우 전혀 새로운 성격의 기독교 신앙이 시작된 것이다. 이는 초대교회를 지나면서, 신앙의 자유와 함께 신앙과 상관없는 '신앙의 둔화'와 비교가 되지 않는 교회의 타락을 가져온 것이다.

초대 교회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다. 기독교 신앙을 말할 시

려는 어떤 힘도 복음의 능력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정반대로 만일 교회가 막대한 정치적 세력에 힘입어 시민들로 하여금 교회에 출석하도록 한다

를 유지하게 되었다. 교회와 수도원의 재산과 보물을 약탈하려는 외세의 습격을 피하고 군사적인 보호를 받기 위하여 봉건 영주들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다. 교

회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였을까? 중세를 시작하면서 베네딕트(Benedict, 480-547)에 의하여 수도원운동이 서유럽에 확산된 바 있다. 기도, 노동, 그리고 독

기하였다. 이는 수도원을 세속 권력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시도였다. 수도원이 봉건적인 토지를 소유하지 않는다는 선언은, 곧 영주의 세속적 영향을 거부하기 위함이었다. 그 당시 상황에 비추어보면 매우 파격적인 결정이었다. 이로써 개혁의 서풍이 분명히 비치기 시작하였다.

기욤은 베네딕트 수도회의 엄한 규율을 엄수하게 하였다. 수도사의 태만과 나태한 모습을 추방하는 방법으로 필사, 노동, 그리고 공동예배에 많은 시간을 할당하게 하였다. 또한 수도사들에게 직접 수도원장을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 초대 수도원장으로 뽑힌 베르노(Berno, 850-927)는 기욤의 뜻을 따라 전통 수도 생활을 복원하는 일에 전념하면서 개혁을 추진하였다.

기욤의 다른 업적은, 교황이 그들을 책임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 것이었는데, 결국 결실을 맺게 되었다. 교황 세르기우스 3세(Sergius III, 860-911)가 수도원을 교황의 직속 기관으로 소속시킨 것이다. 이는 역사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결정이었다. 수도원의 독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로써 수도원이 속한 지역 내에 있는 교회의 책임을 맡은 주교 또는 세속 권력을 잡은 자들의 간섭을 피할 수 있는 근거를 얻게 되었다.

수도원의 제 2대 원장으로 선출된 오도(Odo, 879-942)는 교황으로부터 다른 수도회를 감독하며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허락을 받게 되었다. 베네딕트 수도회의 엄한 규율을 따르며 침묵과 고행을 하지 않으면 어떤 선행도 소용이 없다는 확실한 선언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도사들이 클루니 수도원 개혁 운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오도 수도원장의 노력으로 인하여 클루니 수도회의 개혁운동이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게 되었다.

약순환의 고리

11세기 중엽에 유럽에 영적 영향력을 행사하던 클루니 수도원에 변화가 찾아왔다. 인간적인 야심이 많았던 폰티우스(Pontinus)가 7대 수도원장으로 재임하는 동안(1109-1122), 수도원은 급격히 쇠퇴할 수밖에 없었다. 수도원이 막대한 토지와 재산을 보유하기 시작한 것이다. 수도사들이 노동을 기피한 채, 화려하고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기 시작하였다. 여가 생활에만 경건한 생활에 관심이 없었기에 더욱 나태해져갔다.

개혁 정신을 품고 힘차게 출발한 클루니 수도회 역시 약순환의 고리에 빠진 이유가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과 같아지려거나, 그들보다 더 나은 삶을 추구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을 무너뜨린 적은 바로 그들 자신이었다.

만일 교회가 세속적인 권력과 부를 추구하면 개혁의 힘을 상실하게 된다. 예나 지금이나, 심자가 깊어지고 좁은 길을 선택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 21세기 교회는 달콤한 유혹을 물리치는 힘이 많이 상실하였다. 그렇기에 이제는 교회가 함께 이 커다란 과제를 함께 고민하며 풀어야 할 것이다.

covenantcho@yahoo.com

중세교회 1000년 - 어둠에 잠긴 구속역사의 현장(16)

조진모 목사 (필라델비아한인연합교회)



연단 받는 동안 참된 성도들이 교회 구성하고 수도원운동 신앙 외 다른 동기로 '교회 출석하는 다수' 모임으로 전락

면, 이것 역시 복음의 능력이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까?

만일 기독교의 관심이 세력을 형성하고 팽창하는데 있다면, 얼마든지 기뻐할 일이다. 복음이 유럽을 정복했다고 자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회가 세상 사람들을 향해 외쳐야 할 복음의 힘을 상실하기 시작하였다.

10세기 교회는 끝없는 표류하였다. 그 중심에는 성직자의 타락이 있었다. 교회내의 실제로서 권력과 부를 누릴 수 있는 교황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음모와 갈등

서를 통하여 온건한 수도생활을 추구하되, 매우 엄한 규율을 강조하였던 베네딕트 수도원은 오랫동안 중세 유럽의 영적 기반이 되어왔다. 이 당시 수도원은 교회의 힘을 빌리지 않은 채, 일반 성도들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유지되었다. 시간이 흐르며

끝없이 표류한 10세기 교회의 중심에는 성직자의 타락이 있어 어느시대나 교회가 세속적 권력과 부 추구하면 개혁의 힘 상실

커지거나 힘을 갖는데 있지 않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이다.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시키는 것이다. 그 힘은 영적인 힘이다.

교회가 세속적인 힘에 대한 욕망을 가지는 이유는 분명하다. 탐욕의 유혹에 빠졌기 때문이다. 강력한 통치력으로 프랑크 왕국을 통일시켰던 샤를마뉴 대제(Charlemagne the Great, 742-814)가 사망한 뒤, 200년 동안 유럽은 정치적 혼동에 빠졌다. 프랑크 왕국이 분열되면서 봉건주의 체제로 전환되는 과정을 겪는 동안, 외세의 침략을 받는 일이 생겼다. 그만큼 중앙집권적인 힘이 사라졌다라는 것이다. 교회 역시 정치적인 상황과 함께 밀려닥친 혼란을 피할 수가 없었다.

'순수한 신앙'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린 교회는 생명력을 잃은 채 형식적인 모습

이 풀이지 않았다. 자신이 차지하고자 하는 자리를 노리는 자의 등장을 저지하기 위하여 온갖 권모술수를 동원하였고, 심지어 살인이란 극단적인 방법을 취하기도 하였다. 힘을 가진 자가 누리는 달콤한 맛을 쉽게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11세기 말부터는 외부적으로, 평신도 성직 임명권인 서임권을 두고 교황과 황제의 다툼이 계속 이어졌다.

개혁의 소리

성직자의 타락으로 인하여, 교회를 스스로 지켜갈 수 있는 힘을 상실하게 되었다. 10세기가 되었을 때에 교회에 변화가 찾아왔다. 교회가 처한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함께 개혁에 대한 함성 소리가 수도원으로부터 들리기 시작하였다. 그 중심에는 클루니 수도원(Cluny Abbey)이 있

베네딕트가 추구했던 절대빈곤과 청빈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시들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수도원을 세우는 일에 공을 세운 세속 영주들의 세력이 수도원을 좌우하기 시작하면서, 초기에 지녔던 순수한 모습이 사라진 것이다.

오랫동안 세속 영주들의 영향력 아래 있던 수도원에 변화가 찾아왔다. 10세기 초, 수도원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확신하는 수도사들이 또 새로운 모습을 지닌 수도원들이 설립되었다. 이중 가장 대표적인 곳이 클루니 수도원이었는데, 910년에 프랑크 부르그뉴 지역에서 기욤 1세(Guillaume I, 875-918) 공작에 의하여 시작되었다.

기욤은 자신의 아들의 사랑과 함께 찾아온 커다란 아픔과 상실감을 신앙으로 이겨냈다. 또한 자신과 가족의 구원을 기리며 수도원을 설립한 뒤, 과감히 재산권을 포

Worldwide Church Directory for Southern California (CA) with logos and contact info for various churches like 감사한인교회, 나성순복음교회, 나성영락교회, 나성제일교회, 나침반교회, 남가주든든교회, 남가주사랑의교회, 대흥장로교회, 디아스포라교회, 미주양곡교회, 미주평안교회, 빛과 소금의 교회, 배델인교회, LA 복음연합감리교회, 복음장로교회, 세계소망교회, 오렐선교교회, 엘버인침례교회, 일셔크리스천교회, 은혜안인교회, 주님세운교회, 주님의영광교회, 중은마음교회, 중은마음교회, 코너스톤 교회, 워렌스, Irvine, CA, and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들.

성경도 신앙(56) 교회와 국가



이운석 목사
(NY 부르클린 제일교회)

1. 교회와 국가에 대한 관점들: 천교도 전후의 역사적 과정

1)교회와 국가와 관계에 대한 인식의 필요성

(2)중세기 이후의 입장

제 4회 라테란 공의회(Lateran Council, 1215)에서 이 로마카톨릭의 입장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진술이 나왔는데, 그 성명서는 이렇게 말한다:

“세속 권세들은 어떤 직무를 감당 하더라도 교회 감독을 통해서 권유 받고 유도 받아야 하며 필요하다면 강제력을 동원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 그들이 존중될 자로 대우받기를 바란다면 신앙의 변증을 위해서 공적으로 서약하되, 자기들의 권력을 다 동원하여 자기 관할 하에 있는 교회가 이단으로 정죄한 자들을 추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국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교회 지시할 수 있으며, 교황은 모든 황제들과 왕들과 통치자들을 통제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국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교회가 지시할 수 있으며 교황은 모든 왕들과 황제들과 통치자들을 관할하는 최상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만일 통치자가 교회에 복종하지 않으면 교회는 그를 출교할 수 있고, 필요할 시는 갈로 그 통치자의 나라를 교회가 빼앗을 수 있다고까지 하였다. 이것이 바로 로마카톨릭이 가장 비중 있게 주장했던 것이다.

로마카톨릭교회는 자기들이 사람들의 모든 활동을 통제할 권한과 조정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

도였다. 자기 나라들의 법과 관습이 최고의 법이 되어야 하며, 성직자도 다른 사람과 똑같이 그 법들에 복종해야 한다고 말했다. 헨리 2세는 이런 방면에서 큰 싸움을 벌였다. 그는 완벽하게 성공을 거둔 것은 아니지만 매우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영국에 관한 이 특별한 싸움을 위해 나선 인물은 존 윌클리프(John Wycliffe)였다. 그는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자들의 선구자들에 속한 사람이다. 그가 투쟁한 이슈 가운데 하나는 교황의 지배로부터 자유하는 문제였다. 영국에 이 자유를 최종적으로 가져온 사람은 헨리 8세(Henry VIII) 왕이었다.

헨리 8세가 종교개혁과 관련하여 자기 당대에 이룩한 변화는 교황의

2)다음에 교회가 모든 방면에서 국가의 생활을 통제하고 지배해야 한다는 관점이 있다.

(1)에라스투스주의(Erastianism)

이 관점은 교회와 국가를 동일시하는 관점이다. 일반적으로 이 가르침에 붙여진 이름은 에라스투스주의이다. 왜냐하면 그것을 처음으로 진술한 사람이 에라스투스(Erastus, 1524-1583)라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그 전에도 다른 사람들이 그런 관점을 주장하기는 했지만 그렇게 분명하게 진술한 적은 없었다. 그는 교회가 국가에 복속되어야 한다고 가르친다. 의과대학 교수였고 독일의 하이델베르그에서 공부했으며 스위스 바젤에서 공부한 그는 교회 역사에 있어 한 역할을 감당했다.

그가 하이델베르그에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이 장로교 체계를 하이델베르그에 도입하려고 애썼다. 그에 대응하여 에라스투스는 그의 유명한 책 “출교에 관한 명제들(Theses Touching Excommunication)”이란 책을 출판했다. 그 책이 가르치는 내용의 핵심은 교회는 법을 제정하거나 규례를 만들 권한이 전혀 없다는 것이었다. 또 어떤 종류의 벌칙도 부과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

1215년 라테란 공의회에서 교황의 국가 통제권 성명서 발표 에라스투스는 교회와 국가를 동일시...교회 모든 권세 빼앗아

방하기로 힘쓰겠다고 공언해야 한다. 그러나 만일 교회가 어떤 영주에게 요구하거나 권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단적인 오물들을 청소하기를 게을리 한다면 그 영주는 대주교나 다른 협력 지방 주교들의 출교 처분의 사슬에 묶일 것이다. 만일 1년이 지나도 그가 여전히 조소하며 만족할만한 개선을 하지 않으면 그 사실이 로마의 교황에게 보고될 것이고, 교황은 그 영주에게 부속된 가신들이 그 영주에게 충성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선포하고, 그 영주의 땅은 이단들을 적결했던 카톨릭교도들에게 노출되어 충돌 없이 그 땅을 그들 교도들이 소유하며 믿음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보유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 성명서가 일반적으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려고 애를 썼지만, 그러나 17세기 로마 카톨릭교도이면서 저술가였던 벨라미인(Bellarmino)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함으로써 카톨릭교회의 입장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영적인 유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교황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세속적인 일들을 처리하는 최상의 권세를 가진다.” 바로 이것이 로마카톨릭의 입장이었다.

로마카톨릭교회는 계속 주장하기를 자기들이 국가를 통제할 권한을

회가 그들의 정치들을 통제했 뿐 아니라 그들의 사고방식을 주장했고, 과학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그들의 노력이나 탐구마저도 교회가 주장했다. 그래서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을 교회가 간섭하였다.

때로 교회는 과학적인 발전을 반대하려고 조정하였고, 그 모든 교황이 가지는 권력을 자신에게로 돌렸다.

헨리 8세 이후에 다른 많은 나라들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났다. 로마 카톨릭 교회가 자기의 권세를 여전히 쥐고 있기 위해서 다른 여러 나라들과 조약을 맺어 그런 변화를 지연시키려고 했던 방식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교황은 여전히 자기가 국가의 머리라고 주장한다.

지금도 바티칸은 교황을 머리로 삼는 하나의 국가이다. 그가 유엔 총회에서 연설하는 것도 그런 근거 위에서의 일이다. 그러나 바티칸이 스스로 국가로 행세한다 할지라도 물론 그 권세는 줄어들었다. 남은 권세를 여전히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 가능하다면 이전의 지위를 다시 되찾을 기회를 노리고 있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오늘날 이탈리아에서 더 이상 교황의 권위 아래 있지는 않다. 그가 전에 했던 방식대로 이탈리아의 정치적 생활을 교도하지는 않는다.

자리에 자기를 세웠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믿음을 바꾼 것은 아니었으며, 그는 오직 정치적인 변화에만 관심이 있었다. 그의 임종 때까지 그는 교리적으로는 로마카톨릭 교도였음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헨리 왕은 분명히 교황의 지배권을 제거하였고, 그 모든 교황이 가지는 권력을 자신에게로 돌렸다.

헨리 8세 이후에 다른 많은 나라들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났다. 로마 카톨릭 교회가 자기의 권세를 여전히 쥐고 있기 위해서 다른 여러 나라들과 조약을 맺어 그런 변화를 지연시키려고 했던 방식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교황은 여전히 자기가 국가의 머리라고 주장한다.

지금도 바티칸은 교황을 머리로 삼는 하나의 국가이다. 그가 유엔 총회에서 연설하는 것도 그런 근거 위에서의 일이다. 그러나 바티칸이 스스로 국가로 행세한다 할지라도 물론 그 권세는 줄어들었다. 남은 권세를 여전히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 가능하다면 이전의 지위를 다시 되찾을 기회를 노리고 있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오늘날 이탈리아에서 더 이상 교황의 권위 아래 있지는 않다. 그가 전에 했던 방식대로 이탈리아의 정치적 생활을 교도하지는 않는다.

서 에라스투스는 교회로부터 그 모든 권세를 다 빼앗아 버린 것이다. 여기 그의 입장을 잘 보여주는 진술이 있다:

“눈에 보이는 교회를 일반적으로 다스려 나가는 교회 정치 문제는 국가에게 위탁된 지배권의 한 역할에 속한 부분이다. 기독교 사회 안에서 직분을 가진 자들은 단순히 말씀을 가르치는 설교자들뿐이다. 그들은 시 행정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것 외에는 어떤 것도 다스릴 권세나 권위가 없다. 교회의 권징이나 보다 특별하게 출교의 문제는 행정부가 교회의 직분자들을 고용하여 부과하는 시정적 형벌(civil punishment)이되, 그러나 그 권세의 원천은 시정 당국에만 있다.”

이것이 바로 에라스투스의 가르침이다. 많은 방면에서 영국 국교회의 가르침이 그러하다. 에라스투스의 책은 엘리자베스 여왕(Queen Elisabeth) 통치기(1588-1603)에 영국 국교회가 형성되기 시작할 때에는 그 책이 영어로 번역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 개념은 확산되었고 이미 그 사상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많았다.

younsuklee@hotmail.com

건강 길라잡이

이영직 내과전문의

만성변비

변비가 3개월 이상 계속될 때

만성변비는 매우 흔한 질환인데 일반적으로 남자보다 여자에게서 2-3배 더 흔하고 나이가 많이 들수록 빈도가 증가한다. 위궤양이나 담낭질환 위식도 역류병 등 흔한 위장관보다도 빈도만 따지면 더 흔하다.

만성 변비란 3개월 이상 배변에 이상을 느끼는 질환으로 특별한 이유 없이 발생하는 1차성 변비와 약물이나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2차성 변비로 나눌 수 있다. 1차성 변비는 장운동 자체가 느려서 변비가 생긴 것으로 예를 들면, 노인들의 경우 골반 근육이 약화되면서 배변에 이상을 유발할 수도 있다. 또 장운동은 정상이지만 변비가 있다고 느껴거나 굳은 변을 볼 때 환자가 심리적으로 변비로 인식할 수도 있다. 2차성 변비는 약물로 인해서 생기는데 약물 중에서도 심장약이나 부정맥 치료제, 진통제 등은 만성 변비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변비가 심한 경우는 의사와 상의해야 한다.

변비에 대한 정의는 의사나 의학단체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최근에 발표된 정의는 이렇다. 증상의 빈도와 정도를 종합해서 정의하는데 총 배변 횟수 중 25퍼센트 이상에서 다음 여섯 가지 증상 가운데 두 가지 이상이 있을 때 변비로 정의한다.

△배변이 힘들거나 △딱딱하게 나올 때 △변을 본 후에도 완전히 비워지지 않는 느낌이 들고 △항문이나 직장에 막힌 느낌이 들고 변을 볼 때 △순간적으로 비워야 하고 △일주일에도 변을 세 번 이하로 본다.

변비를 오랫동안 내버려 둘 경우에는 크고 작은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 변비가 심할 때 역지로 변을 보면 항문이 찢어지는 열상이나 치질 등으로 대변을 볼 때 출혈을 할 수도 있고 배변할 때 심하게 힘을 주다가 보면 뇌혈관이나 심장혈관에 지나친 압력을 주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거나 심장마비, 중풍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노인들에게 만성변비는 매우 심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노인들은 심장 질환이나 고혈압 등으로 약물을 복용할 경우 약의 부작용으로 만성변비가 올 수 있다. 또 노인은 장운동 자체가 느려져서 쉽게 변비가 올 수 있다. 병원에 오랫동안 누워있거나 만성적으로 변비를 유발하는 심장약이나 혈압약 등을 복용할 때 심한 변비로 인해서 장 폐색이 올 수도 있다.

만성변비는 변비 이외에 다른 원인으로 인한 것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장암 초기에 발견되지 않고 커져서 장을 막을 경우에도 변비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

강남중앙감리교회 담임목사: 노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7:0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02)525-7767, HP: (017)237-8258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30-20	군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권태진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2:30 지역예배: 오후 7:30 Tel: (02)2643-6754~5 군포시 금림동 870-10호					
금란교회 담임목사: 김정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www.kumran.org Tel: (82)2-430-7000, Fax: (82)2-436-5770 서울시 중랑구 화곡동 340-1(131-231)	든든한교회 담임목사: 장항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금요예배: 오전 11:00, 7:00 금요철야예배: 오후 9:00 Tel: (031)977-8383~9, Fax: (031)977-8382 (주)410-8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670-1	로마한인교회 담임목사: 한평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매일) (젊은이를 위한 헌대예배) Tel: 39-06-827-3585, 39-348-339-1726 39-06-843-8876(교우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312번지 VIA DEI QUINTILI 32-00175 ROMA, ITALY	새이덴교회 담임목사: 소강석 주일1부: 오전 7:30 주일2부: 오전 9:30 주일3부: 오전 11:00 주일4부: 오후 12:30 주일5부: 오후 2:30 수요예배: 오후 8:00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031)896-607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312번지	성문교회 담임목사: 황정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전 3:30 새벽기도: 오전 5:00 새벽2부예배: 오전 6:30 Tel: (82)2-2646-3181~3, (82)2-2646-3184 서울시 양천구 목동 520 (156-808)	성실교회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www.seongsil.or.kr Tel: (02)2-950-9999, Fax: 3927-1008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22-43 (142-073)	성일교회 담임목사: 김정곤 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토요일은 쉰다) Tel: (82)2-2643-8553~4, Fax: 2648-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3동 713-26호
수정교회 담임목사: 이성준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Tel: (82)32-568-0191, Fax: (82)32-562-2738 인천시 서구 불문동 416-4(404-270)	승등교회 담임목사: 박상훈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저녁 7:00 Tel: (02)732-2341~3, 팩스: (02)389-2235 (110-290) 서울시 중로동 137번지	시온소교회 담임목사: 김성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5:00 새벽예배: 오전 5:00(일-토) Tel: (031)253-1004, Fax: (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의왕동 419-2	신길교회 담임목사: 이기용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Tel: (82)2-842-1968, 새벽: (011)8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신길1동 63-3, (150-051)	신천교회 담임목사: 박영석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6:00 Tel: (02)418-8191, Fax: (02)422-0751 서울시 용마루구 노고산동 172-2(잠실동) www.shincheon.org	신촌교회 담임목사: 박노훈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82)2-3142-6080, Fax: (82)2-336-4188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49-45 www.eschin.org	안암 제일교회 주일1부예배: 오전 9:2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30 금요기도회: 오후 8:00 Tel: (02)926-4508 서울시 용마루구 안암시로3길 50-1 www.anamjil.or.kr
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4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전 10:30/오후 7:3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30/6:30/9:00 Tel: (055)210-5500, Fax: (055)210-5510 (641-370)강남 청림1 성산구 율령동 415 www.yangokg.org	왕성교회 담임목사: 김요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전 10:30/오후 7:3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30/6:30/9:00 Tel: (02)888-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41-24 (151-029)	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신일권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3:00 주일4부예배: 오후 5:00 금요심야기도회: 오후 9:30 Tel: (02)842-6881, Fax: (02)842-6882 (136-631)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79-12	주안교회 담임목사: 주중중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후 12:0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주일6부예배: 오후 4:00 주일7부예배: 오후 7:00 Tel: (82)2-527-1009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곡4동 294-10(403-838)	창대교회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82)2-482-3535, Fax: (82)2-488-4508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448-23	청주주님의교회 담임목사: 주서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2: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043)275-9191, Fax: (043)273-8114 361-5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당동 259-12	충남교회 담임목사: 이진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 (82)2-793-7740 서울시 용인구 이촌동 302-67 (140-031)



목회서신

Happy Maker



박성규 목사 (주세운교회)

베이브 루스는 1895년 미국 볼티모어의 빈민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술집을 하는 아버지와 병으로 아픈 어머니 아래서 소년시절 베이브 루스는 아무도 감당 못할 난폭한 소년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런 베이브 루스의 일생을 바꿔 놓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세인트 메리 학교의 마티어스 선생님을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항상 반항하며 거친 야생마 같은 문제아 베이브 루스를 향해 마티어스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이브 루스 너 참으로 어쩔 수 없는 아이구나. 단, 한 가지 좋은 것만 제외하고는.” “선생님! 거짓말하지마세요. 나에게 무슨 좋은 점이 있다는 거죠?” “내가 없으면 야

구팀이 무척 곤란해질 것 같애. 그러니 야구 열심히 해봐!” 어디를 가든 환영을 못 받던 베이브 루스에게 마티어스 선생님의 이 한마디 칭찬은 그의 방향을 끝내게 했습니다. 베이브 루스는 자신에게도 장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열심히 야구에 전념했습니다. 이후 베이브 루스는 714개의 홈런을 치는 미국 야구왕으로 전설적인 존재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평생 버려진 자신을 그 영광의 자리에 오르게 한 마티어스 선생님을 잊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한사람을 바꾸는 힘은 백 마디의 꾸중보다 한마디의 칭찬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속담에 “두말의 쓸개보다 한 방울의 꿀

이 더 많은 과리를 잡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9개의 단점을 보지 말고 1개의 장점을 보는 눈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엔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아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강한 자가”란 단어는 영적으로 강한 자 즉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뜻합니다. 성숙한 신자는 연약한 자 즉 영적으로 미숙한 자의 실수나 단점, 허물을 덮어주고 담당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행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담당한다는 것은 헬라어로 ‘바스타제인’ 즉 짐을 함께 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있는 자가 없는 자와 함께 짐을 나눠지고, 강한 자가 약한 자의 고통을 함께 나눠질 때, 약점을 덮어줄 때 그곳에 행복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바로 약한 자를 사랑하고 짐을 나눠지는 삶이었습니다.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을 하고 있는 사업가가 두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빙을 하던 웨이터가 실수로 그 중의 한병에게 와인(wine)을 쏟았습니다. 옷을 버린 사업가는 불같이 화를 내었습니다. “너 지금 미쳤어? 내가 누군지 알아? 여기 지배인 나오라고 해!” 이 사람과 미팅을 하던 사람은 브렌다 반스라는 의류업체의 거물이었는데, 그녀는 이 모습을 보고 당장 거래를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유명 IT 기업의 워트니스 시스템의 대표 데이브 굴드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을 하고 있는데 서빙하는 웨이터가 실수로 손님의 옷에 주스를 쏟아 버렸습니다. 그때, 계약 협상자가 “마침 아침에 샤워를 못했는데 잘 되었네요. 양복

도 사실 싸구려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라며 미소로 넘어가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빌 스완스가 정리한 비즈니스 규칙 33가지 중 하나인 ‘웨이터의 법칙’입니다. 웨이터의 실수를 대하는 태도를 보고 계약을 정해드 된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낮은 사람과 중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오는 모습이 나의 성품이며,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보다 강한 자에 대해서는 극도로 잘합니다. 그러나 나보다 약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며 예수님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아프고 가난하고 갇히고 고동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짐, 질병의 짐, 인생의 짐을 맡아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약점과 허물을 덮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53장 5절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함이고 그가 상함

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거나 의를 행할 때가 아니라 아직도 여전히 죄와 허물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성숙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사실을 이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를 범한 자까지 그가 누우시면 덮어주는 자 곧 주님의 사랑을 이행하는 큰 자, 성숙한 자, 행복을 창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이 강한 자가 되어 우리 주위의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Happy Maker가 되어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뉴욕 퀸즈장로교회가 소망소사이어티 소망 우물 사역을 위한 성금을 전달했다

열렸으며 퀸즈장로교회에서 우물 2개를 만들 수 있는 7천 달러의 성금을 계좌로 전도사가 방문해 전달했다. 소망소사이어티는 지난 2011년부터 아프리카 차드 지역에 소망우물을 347개를 마련해 식수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프리카 차드의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어왔다. 한편 제 2기 죽음준비 전문가 교육 세미나는 유분자 이사장이 소망소사이어티 소개, 최경철 사무총장이 ‘죽음과정’, 에린킴 사회서비스 국장이 ‘마지막 2년반’, 박혜수 교육부장이 ‘죽음준비 소망유언서’, 최경철 사무총장이 ‘전인적 건강’이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풀뿌리 시민모임인 WCC의 전찬영 변호사가 LA총영사관 앞에서 가세티 LA시장 등 한국방문에 대한 항의서한을 들고있다

둘째 날에는 오키노 장의사에서 화장과 매장에 대해 견학수업을 했으며 소망소사이어티로 이동하여 에린킴 사회서비스 국장이 ‘치매’, 김미혜 사무국장이 ‘사별과 애도’, 최경철 사무총장이 ‘나의 인생’이라는 주제로 각각 강의했다. (박준호 기자)

WCC, 가세티 LA시장 등 한국방문 이의 제기 LA총영사관 앞서 기자회견 갖고 항의서한 전달

에릭 가세티 LA 시장과 데이비드 류 시의원(4지구)이 지난 26일과 27일 서울을 방문해 이낙연 국무총리와 박원순 서울시장과 만나는 일정에 대해 월서커뮤니티연합(WCC)이 반대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가세티 시장이 ‘LA 한인타운 24시간 노숙자 임시 쉼터’ 계획을 일방 통보하고, 홈리스에 관한 워크샵에서 한인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자신들이 결코 그렇게 생각되는 자들의 입장을 차단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는 상황에서 한국 국무총리 환대까지 받는 것은 과한 의전이라고 주장했다. 풀뿌리 시민모임인 월서커뮤니티연합은 24일 LA총영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가세티 시장을 만나는 일정에 대해 재고해달라고 호소했다.

WCC는 “이 총리가 가세티 시장을 만날 수밖에 없다면 이곳 한인 사회가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 최소한 우려라도 표명해 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지난 23일 에릭 가세티 LA 시장은 데이비드 류 LA시의원, 조 부스 카이노(15지구), 폴 크레코리안(2지구) 시의원들과 LA 항만, LA 공항 공사, LA 관광청 관계자들과 아시아 4개국(일본 도쿄, 한국 서울, 베트남 하노이, 호치민, 홍콩) 방문길에 올랐다. 대표단은 한국 방문길에 이낙연 국무총리, 박원순 서울시장,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 등을 만났다. 방문 목적은 LA와 아시아 국가 간 무역과 관광산업 활성화다. LA와 서울은 자매결연 도시다. 가세티 LA시장은 LA총영사관(

총영사 김원중) 측에 문제인 대통령을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LA총영사관은 의전서열 등을 고려해 난색을 표했고, 외교부 차관 라인을 통해 이낙연 국무총리와 만남을 주선했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특별한 현안이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타국의 시장과 면담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라며 “국무총리가 다른 나라 시장을 만날 수는 있다”고 말했다. WCC는 이날 가세티 시장일행과 이낙연 국무총리와의 만남에 대한 항의서한을 국무총리에게 전달해달라며 LA총영사관에 접수했으며 LA 총영사관은 이날 WCC가 접수한 항의서한을 본국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27일(한국시간) 에릭 가세티 LA시장과의 접견에서 한인사회 의견을 수렴해 노숙자 임시 쉼터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7일(한국시간) “미국 LA 한인사회가 노숙인 임시보호소 설치 문제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인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하루 전인 26일 박원순 서울시장 역시 에릭 가세티 시장과의 만남의 자리에서 “한인타운과 한인사회가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뤄나가도록 각별한 애정을 갖고 한인사회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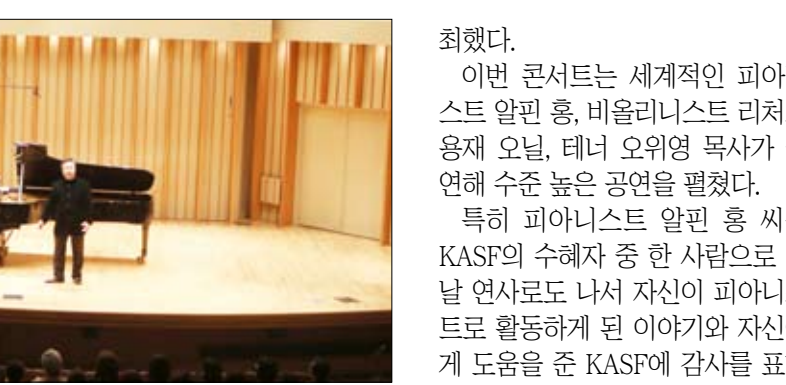
무국적 입양인 돕기 제5회 외대 합창단 정기공연에서 외대합창단이 관객들과 함께 합창하고 있다

제5회 남가주 외대 합창단 정기공연 무국적 한국 입양인 돕기 위해 마련

무국적 입양인 돕기 제 5회 외국 여대학교 합창단(단장 김재권, 지휘 오위영) 정기공연이 7월28일 오후 7시 지퍼 콘서트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김재권 단장은 “남가주 외대동문회 합창단 제 5회 정기공연에 참석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음악이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 없다. 대지를 뜨겁게 달구는 여름의 한 가운데 아름다운 노래를 들으면서 행복한 시간을 갖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공연은 ‘Still’, ‘히브리 노래들의 합창’, ‘거룩하시도다’, ‘은혜의 강물 따라’, ‘내게 강 같은 평화’ 등 성가곡, ‘그리움 실은 파도’, ‘고향의 노래’ 등 한국가곡이 연주됐으며 김인용 동문가족 중창팀의 공연이 있었다. 또한 소프라노 강혜정 교수(계명대학교 공연예술대학)가 특별출연해 ‘두 손에 담겨진 사랑’, ‘꽃구름 속’ 등 한국가곡과 오페라 아리아 ‘보석의 노래’를 불렀으며 테너 오위영과 외대합창단과 함께 ‘Time

to say good bye’를 불렀다. 마지막은 관객들과 함께 선구자와 외대 교가를 부르고 마쳤다. 이날 공연은 무국적 입양인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무국적 입양인은 2000년 이후 미국에 입양된 이들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돼 1983년 2월 27일 이후 출생한 입양인들은 자동으로 시민권이 인정됐다. 하지만 1983년 2월 27일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은 시민권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사각지대에 남아 취득절차를 밟아야만 했다. 한국의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2012년까지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된 자는 111,148명이며 이중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19,429명으로 집계됐다. 현재 시민권이 없는 한인 입양인은 대략 3천-1만8천여 명으로 추산된다. 입양인이 시민권을 가지려면 입양절차와는 별도로 미국인 양부모가 별도로 취득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과정을 모르고 입양절차만 종료한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입양인들이 시민권이 없

는 사실을 모르고 살다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간혹 범죄에 연루돼 본국으로 추방되는 사례가 발생해 온 했다. 지난해 한국으로 추방된 입양인 애덤 크랩서(한국명 신홍혁)가 대표적인 사례로 그는 미국에 입양돼 40년을 살다가 한국으로 추방됐다. (박준호 기자)



KASF 주최 베네프트 콘서트가 성황리에 열렸다

KASF, 장학기금 마련 베네프트 콘서트 수혜자 피아니스트 알핀 홍 간중하며 비전 나눠

한미장학재단(KASF) 서부지부(회장 프레디 김)는 장학기금 마련을 위한 베네프트 콘서트를 7월 29일 오후 7시 지퍼 홀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콘서트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알핀 홍, 비올리니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 테너 오위영 목사가 출연해 수준 높은 공연을 펼쳤다. 특히 피아니스트 알핀 홍 씨는 KASF의 수혜자 중 한 사람으로 이날 연사로도 나서 자신이 피아니스트로 활동하게 된 이야기와 자신에게 도움을 준 KASF에 감사를 표했으며, 15주년을 맞는 한미장학재단의 비전에 대해 나눴다. 테너 오위영 목사는 “KASF는 학생들에게 꿈과 미래를 심는 단체”라며 “많은 젊은이들에게 꿈과 미래를 심을 수 있도록 관심과 도움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프레디 김 회장은 지난 12일 본보를 방문해 “한미장학재단은 미전역에서 한인학생들을 위한 장학

재단 중 가장 오래된 단체”라며 “그동안 장학기금마련 연례 골프대회를 실시해왔으나 올해에는 1.5세와 2세대의 참여 폭을 넓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의미 있는 행사 개최를 위해 처음으로 베네프트 콘서트를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티켓 수익금의 전액이 KASF의 장학기금으로 사용된다”며 “세계적인 클래스의 공연을 즐기고 기부도 함께 할 수 있는 일석이조 콘서트에 많은 한인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KASF는 지난 1969년 설립된 미주 한인사회 대표적 장학단체로 LA와 뉴욕,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휴스턴 등 미 전역 6개 지부를 두고 있다. (박준호 기자)

목양칼럼

4면에서 계속) 바울을 위해서라면 시간이나 몸을 사리지 않았던 믿음직한 제자이었다. 이상한 점은 이토록 디도를 사랑하였는데 사도행전에는 디도의 이름이 없다. 그 이유에 대해 어느 학자는 디도는 누가와 친족 간이었기에 일부러 디도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그런데 니고볼리는 기원전 31년

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안토니우스와의 전투의 야영지이었고, 전투에서 승리를 기념하여 황제는 악티움 경기가 열리도록 주선한 곳이기도 하다. 이 땅의 장소들은 누가 그곳에서 무엇을 하였는가를 역사는 기록한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건을 음미하고 생각하게 한다. 디도는 바울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한 진정한 제자다. 세상은 변

화무쌍한 곳이기도 작은 일로 인해 관계가 변하고 틀어지는 일들이 많다. 세상에는 데마 같은 사람들이 넘쳐난다. 스승이 복음 때문에 체포되고 옥에 갇혀 순교 당하게 됨을 분명하게 인식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변호하고 지지해주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할 수 있다. 성경은 예외적인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된다. 주님의 칭찬을 들었던 백부장이나 스로본니게 여인 같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방인들이다.

디도 역시 헬라인이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주님의 칭찬 들은 자가 별로 없다는 사실은 영적 아이러니다. 아울러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부분이다. 당신도 정신 차려야 한다는 함성 같은 외침일 수도 있다. 주님께 인정받지 못할 때 그는 헛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디도가 바울을 쫓았듯이 우리는 주님을 쫓을 수 있을 까? chiesadroma@daum.net

동부교계 기사판



미주동부총신신문회 박용규 교수 세미나

미주동부 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동문회(회장 이재철 목사)가 주최하는 박용규 교수 세미나(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 역사신학교수)가 뉴욕과 뉴저지에서 열린다. △뉴욕에서는 8월 13일(월)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30분 나루교회(담임 정주성 목사) "주일강단을 회복하라-성령이 이끄시는 사도행전적 교회"라는 주제로, △뉴저지에서는 14일(화)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30분 뉴저지영광교회(담임 정광희 목사)에서 "주일 강단을 회복하라-교회사에 나타난 성령의 부으심"라는 주제로 각각 진행된다. 세미나 후 오찬과 교제시간이 있다.

▲등록문의: (718)683-8884 박성원 목사

살롱교회 '예수 동행 일기' 개최

살롱지역 한인교회협의회가 주최하는 '예수 동행 일기' 후속 모임이 8월 13일(월)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제일장로교회(담임 최유찬 목사)에서 열린다. 이 모임은 지난 5월 초순 회합가정 80여명이 참여했던 그 후속 모임으로 이번에도 새로운 자극과 상호 격려 그리고 재가동의 동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모임 장소와 간식은 제일장로교회, 저녁식사는 살롱장로교회(담임 나성근 목사)가 제공한다.

▲문의:

"주 예비하신 집" 홈 테마 콘서트

유대용 목사(라이프라인미션 대표)가 진행하는 "주 예비하신 집" 홈 테마 콘서트가 이번에는 포코노(Estate Lake Harmony)에서 9월 10일(월)부터 12일(수)까지 2박3일간 열린다. 참가비는 일인당 120달러, 부부동반 200달러. 신청마감은 8월 15일까지. 선착순 마감.

▲문의: (646)258-4161, usallm2020@gmail.com

아름다운교회 황인철 목사 결국 사임

아름다운교회 황인철 목사가 지난 29일 주일예배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고 사임했다. 황 목사는 이날 "선을 이루소서"(롬8:28)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아름다운교회가 도약을 위해 새 지도자가 필요하다"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와 저에게 주시는 은

혜"라고 감사했다. 교회는 8월 5일 오후 5시 친교실에서 황 목사 송별회를 가질 예정이며, 8월부터 노회가 임시당회장을 파송하고 청빙위원회도 구성하게 된다.

(정리: 유원정 기자)

뉴욕나눔의집 조용수 집사 장례식 마쳐

지난 24일 뉴욕나눔의집(대표 박성원 목사)에서 생활하다 폐렴으로 별세한 조용수 집사의 장례가 중앙장사사에서 진행됐다.



뉴욕나눔의집 조용수 집사 장례식에서 박성원 목사가 집례하고 있다.

박성원 목사의 집례로 나눔가족들의 특성에 이어 박용규 교수(한국 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교수)가 "스데반의 순교"(행7:54-60)라는 제목의 설교 후 박성원 목사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뉴저지 파인브룩 묘지에 안장됐다. 박성원 목사는 "조용수 집사는 33년 전 이민 와서 건강과 재정을 잃은 실패한 인생 같았으나 나눔의 집에 들어서서 4년여 동안 생활하면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 세

례를 받고 금년에 집사직분도 받고 죽기 전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다시 사망이 없고 고통과 괴로움이 없고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갔으니 인생의 승리자"라고 말하고 "특별히 장례를 잘 치를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교회와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기사제공: 뉴욕나눔의집)

뉴욕교협 미자립교회 후원 약정/요청서 발송

마감 8월 15일... "예수사랑실천 운동" 일환

"예수사랑 실천하는 교협"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2018년을 출발한 뉴욕교협(회장 이만호 목사)이 미자립교회 지원을 위한 후원약정서와 후원요청서를 8월 15일까지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이메일로 발송했다.

뉴욕교협은 지난 30일 이메일을 통해 미자립교회 지원은 "자립교회가 주안에서 형제교회로 삼고 손을 잡아 일으켜주고, 세워주어서, 사랑 실천과 사랑 행동의 운동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이 땅위에 세우며 확장하는 미자립 교회를 세우는 운동이며, 지원하는 운동"이라며 "자립교회가 이웃에 어려운 미자립 교회 후원을 통해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우는 운동을 하여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통하여 복음 확장으로 영향을 줄 것입니다. 이웃의 약

한 자립교회를 선발하여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자립초기에 도와서 자립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개척교회의 여러 사례와 노하우를 전수하며 리더하는 한편 물질과 기도로 측면에서 지원하여 초기 사역을 지원하므로 자립해 설수 있도록 미자립 교회들에게 힘이 되어주며 중보해주는 선교 사역이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첨부된 후원약정서를 보면 약정 금액과 후원교회 지정 여부, 후원 기간, 후원 방법 등을 쓰도록 돼 있다.

한편 후원요청서에는 교회건물 여부, 출석인원, 협조기관 여부, 교협 회원인가 아닌가 등을 묻는 난이 있다.

(유원정 기자)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7월 정기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했다.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7월 정기예배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회장 유상열 목사)가 지난 25일 퀸즈침례교회(담임 박진희 목사)에서 7월 정기예배를 드리고 2018 단기선교 및 후원아동 현황을 점검했다.

1부 예배는 박이스라엘 목사의 인도로 기도 감사사, 설교 유상열 목사, 합심기도, 축도 최창섭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유상열 목사(리빙스톤교회 담임)는 "겨울이 오기 전에"(딤후 4:9-22)라는 제목으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는데 이중 하나님의 절대적 시간 크로노스는 아무도 막을 수 없다"며, 인생의 사계절을 설명하고 로마감옥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를 본문으로 하여 말씀을 전했다.

유상열 목사는 "우리가 지금 인생의 겨울을 맞이했다면 떠오르는 믿음의 자녀가 얼마나 있을까?"라고 반문하고 "누구나 맞이할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용서할 것 용서하고, 해야 할 일 다 마치고, 만일 사담 다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사도바울처럼 의의 면류관 바라보며 인생의 겨울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원정 기자)

2부 회무에서는 단기선교와 후원아동 현황을 보고했다.

유상열 회장은 "후원을 받을 때 단회적 후원과 아동후원을 구분해서 받고 이에 합당한 세금공제 및 감사편지를 반드시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무총장 전희수 목사는 "본 기구가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이사장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임원들의 작은 주머니로 이끌어 가신다"며 기도와 물질의 후원을 당부했다.

10월 1일부터 5일까지 진행되는 과테말라 단기선교는 6명이 참가한다. 개인경비(500달러 예상)와 타임 테이블은 8월초까지 확정짓기로 결의했다.

또 7월말 신규 후원아동 결연 및 아동후원 변경 등을 보고했다.

11월 25일(월) 열리는 '2018 후원자의 밤' 장소는 뉴욕에벤에셀선교회(담임 최창섭 목사)로 확정했다.

이날 폐회기도는 권금주 목사가, 친교 기도에는 김영환 목사가 했다.

한편 8월 월례예배는 22일(수) 오전 10시30분 빛과소금교회(담임 정순원 목사)에서 열린다.



뉴욕교협 이사회가 주최한 할렐루야대회 위로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했다.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다"

뉴욕교협 이사회 할렐루야대회 위로회 열어

할렐루야 뉴욕복음화대회를 마치고 뉴욕교협 이사회가 대회 준비와 진행에 수고한 관계자들을 초청해 위로회를 가졌다.

이사회(이사장 김주열 장로)는 지난 7월 25일 오전 11시 목양장로교회(담임 송병기 목사)에서 위로회를 열었으며, 오찬 전 예배를 드렸다.

예배는 손성대 장로(부이사장) 인도로, 기도 정순원 목사(교협 부회장), 성경봉독 이계훈 장로(총무 이사), 설교 이만호 목사(교협 회장), 축도 안창의 목사(교협 경역회

장), 식사기도 김희복 목사(교협 총무), 광고 송윤섭 장로(서기이사)의 순으로 진행됐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롬12:14:21)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이만호 목사는 "첫 주초 대회, 휴가와 선교의 계절, 다른 교계행사 등 여러 상황 속에서도 대회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성황을 이루도록 도운 선배, 동역자, 장로와 평신도, 언론 등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7월 20일 밀알캠프 공연모습과 공연후 단체사진

이노비, 동부밀알 사랑의 캠프에서 공연

이노비는 지난 7월 20일 저녁 8시30분 뉴저지 프린스턴에서 열린 동부밀알 사랑의 캠프에서 300여명의 장애인, 봉사자, 가족을 위한 특별한 콘서트를 열었다. 이 콘서트는 뉴욕나눔재단, 재외동포재단, 미주밀알선교단의 공동후원으로 진행됐다.

이번 콘서트는 총 1시간여의 다양한 세대를 어우르는 뮤지컬, 유망 팝송곡으로 이뤄졌다. 참여한 연주자는 NYU 뮤지컬 석사를 졸업하고 뉴욕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유해림(음악감독, 키보드)씨와 AMDA를 졸업하고 뉴욕 오프브로드웨이 무대에서 활약 중인 뮤지컬 배우 박하나와 정재영(기타), 정상수(베이스), 석다연(드럼), 앨리슨 레아 벤더(배우), 브룩 웨더한(배우), 감지호(배우), 임요섭(배우)가 참여해 신나고 즐거운

무대를 펼쳤다. 이번 밀알캠프 공연을 시작으로 이노비는 7-8월 매주 소외된 곳을 찾아가는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7월 26일에는 플라싱의 유니온 플라자야로원, 31일에는 맨해튼 메모리얼슬픈테러링 양명원, 8월 9일에는 컬럼비아대학 어린이병원, 그리고 8월 15일에는 광복절을 맞아 뉴저지은혜가든 한인야로원을 방문한다.

이후에도 2018년 하반기동안 브롱스에서 플라워 힐링프로그램을, 할렐루와 퀸즈에서는 음악교육프로그램, 그리고 메인프로그램인 아웃리치공연 프로그램도 총 40회 이상 진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는 (212)239-4438나 enobinc@gmail.com로 하면 된다.

(기사제공: 이노비)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 교회

뉴욕부르클린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윤석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45 새벽기도: 오후 8:45 사별기도: 오전 10:30 성령훈련: 오전 10:00 화, 토 Tel: (718)265-2584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 www.kcb.org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재철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양) 수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516)883-1977, Fax: (516)88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 www.kcb.org	뉴욕새벽별장로교회 담임목사: 정기태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30 주일3부예배: 오후 1:15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917)733-7387 45-16 162 St., #204, Flushing NY 11358 chungkilee@yahoo.com	뉴욕새생명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준준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718)637-1470 45-50 162 St., #2FI, Flushing, NY 11358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예배: 오전 10:30 주일2부예배: 오전 12:45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 금요기도회: 오전 10:30 Tel: (718)461-2810(Fax 겸용),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www.kapcc.org	뉴욕갯세미네교회 담임목사: 이지용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2:40 새벽 기도회: 오전 5:30 수요일 새벽예배: 오후 8:30 금요일 기도회: 오후 8:30 한국학교: 오전 9:30(토) Tel: (516)520-2004, nygodsp@yahoo.com 2408 5th St., East Meadow, NY 11554 www.nygettsemine.org	뉴욕목양장로교회 담임목사: 송병기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 Tel: (718)361-9199, Fax: (718)361-9433 12-25 Clintonville St., Whitestone NY 11357 www.mokyang.org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 (매주 1주, 3주) Tel: (201)342-9194, Fax: (201)943-5204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http://sungdochurch.org/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찬양예배: 오전 10:50 청년성경공부: 오후 1:30 주일학교: 오후 12:30 주일학교: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수요일 찬양예배: 오후 8:30 Tel: (718)961-2171, Fax: (718)961-3631 215-29 42 Ave, Bayside, NY 11361	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 정순원 주일 1부 오전 7:30분 주일 2부 오전 1:50분 주일학교: 오후 1:50분 청년예배: 오후 8:00(월-토) 새벽기도: 매일 오전 6시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30분 Tel: (347)513-1351, cheongsoonwon@yahoo.com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	주비교회 담임목사: 이규분 주일예배: 오후 12: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봉사기도: 오후 5:00 영아예배: 오후 1:00 Tel: (718)787-8999, bonrhee@hotmail.com 70 Plandora Rd, Manhasset, NY 11030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12:15 수요일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 Tel: (718)886-4040, Fax: (718)358-7789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www.kapcc.org	퀸즈한인교회 담임목사: 김재철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http://www.cpcqny.org Tel: (516)387-9940, 9942(EM) 154 Old Westbury Road Old Westbury, NY 11568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브라질 새소망교회 담임목사: 박재호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5:00 주일6부예배: 오후 7:00 Tel: (5511)6693-9754, 6692-1165 RUA SANTA RITA, 215-PARI-SAO PAULO-SP-BRASIL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최광언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4부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 Tel: (54)114-631-1788 AV. CARA BOBO 1253, CAP.FED., B.S., A.S., ARGENTINA	칠레 한인연합교회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일기도회: 저녁 9:00 7:14(토)기도회: 아침 7:40 유, 초, 중, 고등학생: 금요일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30(주일) Tel & Fax: (562)556-78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토론토 가든교회 담임목사: 김성민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양)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금요예배: 오후 7:30 Tel: (416)490-9060 http://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	하와이 행복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주일3부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 (808)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	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 담임목사: 김성훈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 성경공부: 오후 7:00 목회기도회: 매일 새벽, 금요일 금요기도회: 오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Tel: (604)584-5780, Fax: (604)584-5717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	브라질 서울교회 담임목사: 하경남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 Tel: 3277-1489, Fax: 3209-9343 Rua Joaquim Piza, 281 Cambuci S, Paulo Cep 01528-010	브라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봉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 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i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5-010 www.kcny.org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12:30(영양)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Tel: (808)947-5252, Fax: (808)947-5151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	멕시코 선교 본부 교회 선교사: 임한근 목사 멕시코 번식 교회 교우 주일1부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후 3:00 주일3부예배: 오후 6:00 (1, 2부 예배는 사설교회) Tel: (52)33-3507-4111 E-mail: hanimkr@hanmail.net Goya 530 Manuel, Acuna, Guadaluajara MEX(멕시코)						

장애인과 함께 하는 하나님 나라...

세계밀알연합 주최 장애인신학세미나 성황리에 열렸다



세계밀알연합 주최 장애인신학세미나가 미주북음방송 공개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세계밀알연합(총재 이재서 목사) 주최 장애인신학 세미나가 미주북음방송(사장 이영선 목사)에서 7월 25일과 26일 이틀에 걸쳐 성황리에 열렸다.

정승원 교수의 사회로 시작된 세 마나 첫날은 강원호 목사, 소형근 교수, 이상명 총장이 강의했다.

“하나님나라 복음과 장애인 선교”라는 주제로 강의를 한 강원호 목사(뉴저지 밀알선교단 단장)는 “한국교회와 미주한국교회들의 장애인신학에 대한 인식은 초창기에 비해 상당히 진전이 있지만 여전히 변방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목사는 “예수 하나님나라의 복음은 예수의 죽임과 부활이 목적”이라며 “사도들이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선포해 이루고자 했던 목적이 우리를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 하나님의 신적 생명

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이며 그것은 예수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일치한다”고 말했다.

그는 “하나님 나라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모든 면에서 예수의 주권이 나타나야 한다”며 “예수가 전한 하나님나라의 복음이 제자들이 전한 예수의 죽임과 부활의 복음으로 바뀐 신학

적 이유를 분명히 할 때 장애인 선교의 신학적 토대는 총체적인 구원이 돼야 할 것이고 이 총체적 구원을 가능케 하는 소식인 예수가 전한 하나님나라 복음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약성서의 장애인과 함께하는 동행의 신학’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강의를 맡은 소형근 교수(서울신학대학교)는 “성서학에서 장애인에 대한 연구가 활발했던 것은 아니다. 그것은 오늘날 사회가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장애인 복지를 확대시키는 마당에, 성서에서 장애인을 언급하는 본문들은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이 강하기 때문”이라 언급하며 “성서는 장애인 이든, 비장애인이든 모두가 한계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려준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 모두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불완전한 존재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는 것은 장애가 있건 없건, 사회적 지위나 성별이나 피부색과 상관없이 모든 인간의 권리와 존엄성이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 교수는 장애인 동행을 위해서 “첫째, 하나님은 구약성서에서 장애인과 차별금지 명령하셨다(인 어장자 모세를 선택) 둘째째, 하나님은 구약성서에서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셨다(미4:6, 습

3:19). 하나님의 구원계획이라는 큰 그림에는 장애인에 대한 우선적 배려가 깔려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장애인에 대한 국민적 의식변화를 위한 교육과 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다윗은 다리 저는 요나단의 아들 트비보셋을 자신의 상에서 먹게 했으며 욕은 자신도 약성 피부질환으로 고통당하면서 맹인의 눈이 되고 다리 저는 자의 발이 돼 주었다”고 설명했다.

‘바울의 공동체 사상과 장애인 신학’이라는 주제로 세 번째 강의를 맡은 이상명 박사(미주장신대 총장)은 “현대사회는 불안장애, 공황장애, 강박장애, 성격장애, 학습장애 등과 같은 정신장애인들의 수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며 “정상과 비정상 이데올로기도, 죄와 장애를 인과적 관계로 보는 것도 성서적 가르침과 일치하지 않는다. 맹인 바디메오는 장애인이 어떻게 비장애인보다 제자도를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 보여줬다. ‘장애=비정상’, ‘비장애=정상’이라는 이데올로기에 근거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서는 사라지거나 전도된다. 오히려 죄로 인한 비정상적인 세상에서 다양성과 차이점이 존재하는 것이 정상이며 장애인 신학에는 개인이 지닌 신체적 손상이나 결함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의 능력과 아름다움을 놓쳐버리지 않도록 제어하는 실천적 역할이 내재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반영된 사회적 책임에 조응해 사회 모든 측면에서 장애인들을 배제시키는 장애물들을 적극적으로 제거하면서 수용과 화해의 공동체로서 사회변혁의 대리인이 돼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한편 둘째날은 세계밀알연합 및 미주밀알선교단 소개시간이 있었으며 김한옥 교수(서울신학교, 세계밀알연합 이사장)가 ‘장애노인을 위한 목회’, 장승익 목사(함께하는교회, 세계밀알연합 이사)가 ‘장애인 과 비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성경적 대안 모색’, 이경식 교수(클레어몬트신학교 교수)가 ‘장애와 목회 상담’이라는 주제로 각각 강의했다. (박준호 기자)



남가주교역자회 주최 청교도 리더십 비전캠프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MFA SC 주최 청교도 리더십 비전캠프

2차 8월 20-22일, 플리머스, 보스턴 등 순회

미주성결교회 남가주교역자회(MFA SC 회장 안신기 목사)가 주최한 청교도 리더십 비전캠프가 매사추세츠 주의 역사적인 장소 플리머스와 보스턴, 노스햄튼, 노스필드, 피바디 샬름 등에서 열렸다.

랍스터 파티와 더불어 1차로 39명이 참가해 500달러씩 리더십 비전 훈련상과 15명에게 장학금상과 20명에게 선교장학 후원상을 수여했다.

금번 행사는 안신기 회장과 그레이트한반도통일리더십연구소 김회창 대표, 보스턴리더십센터 장영규 원장이 임원진과 긴밀한 기획과 추진했다. 1차에는 아동 청소년과 그 부모들이 참가해 7월 23일부터 25일까지 시행했다.

첫 날은 청교도 파이오니아 리더십인 미국의 건국정신을 플리머스 선조동상, 프랜태이션, 17세기 마을, 보스턴 시내에서 찾아보았다. 저녁강사는 이승훈 박사가 맡았다.

둘째 날은 대각성운동 리더십을 조나단 에드워드 프린스턴 총장, 드와이트 부디 생가를 방문해 찾았으며 버스 안에서 특강이 진행됐고 학생들은 어머니에 관한 에

세이를 발표해 어머니들에게 힐링의 시간이 됐다. 저녁강사는 폴 홍 박사.

셋째 날은 지성과 영성의 리더십 명암을 피바디 샬렘워치미즈업, 하바드, MIT, 퀸지 마켓에서 찾아보았다. 이날 김회창 목사가 장학금상 신청을 위한 4 포인트 트리를 설명해 대학생들을 준비시키며 리더십을 가질 수 있도록 조언했다.

특히 금번 3일간 모든 경비는 한국의 성결교회인 대연, 신길, 서산, 홍성, 비전 교회와 미국에서 아틀란타한인은혜, 빛과소금, 뉴욕, LA지방회, LA동지방회, 남서부지방회와 소속된 유니온교회를 비롯해 여러 교회들이 후원하고 김승욱 장로, 이흥근 총무 등 개인들이 후원했다.

미주성결교회 남가주교역자회는 그레이트한반도통일리더십연구소의 기획 해설 협력을 얻어 동일한 프로그램을 2차로 8월 20-22일 55명이 참석해 실시할 예정이다.

(기사제공: 미주성결교회 남가주교역자회)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5면에서 계속)

매일같이 세상과 부모와 환경을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며 맞고 산다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미래의 소망을 볼 수 없는 안타까운 인생이 된 것이다.

영적실패 현재적 삶의 실패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하면 변화의 기회를 잃어버린다. 사울 왕을 보면, 예배의 잘못을 통해 왕권이 떨어지고 가문이 멸망해감에도 핑계에 급급함을 본다. 부두어했다는 이름으로 회개하지 않는다. 그런 영적 실패는 그의 인생의 실패를 가져왔고, 자신만이 아니라 세 아들까지 한날 한시에 죽게 된 것이다. 흔히 영적이라는 이름으로 육신의 문제와 분리시키려는 것을 본다. 그러나 영적인 실패는 반드시 현재적인 삶에서 눈에 보이는 실패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변화의 열매가 없으면, 세상가운데서 누릴 것이 없다. 로마서 3장에 의인이 없다고 했고, 그 임의 혀는 독사의 혀와 같고, 발이 열마나 빠르니 피 흘리는 데만 따라 다닌다고 말씀한다. 아무리 은혜를 주어도, 받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받을 수가 없음을 본다. 되는 것 같은데 안 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금고가 털렸을 때, 경찰은 전과자들을 제일 먼저 추적한다. 그만큼 사람의 변화가 쉽지 않음을 세상도 잘 알기 때문이다. 스스로 노력해서 변화될 수 있을까? 약간의 가능하겠지

만, 성경은 어렵다고 말한다.

환경이 조금만 어려워져도 자기 입으로 고백하고 간증한 그것을 스스로 지키지 못한다.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영적으로 성공하지 못하는 삶, 늘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 자기중심적이며 병적인 자기애를 가진 인생의 당연한 귀결점이다. 성경이 반증하지 않는가? 결국 종말시대의 극단적인 자기중심 사상은 아무런 선한 열매 없는 핑계와 원망으로 점철된 인생을 빚어낼 뿐이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주어로 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최우선의 순서를 가져야 한다. 문학에서 말하는 전지적 관점에서 문제를 들여다보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첨가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마라. 특별히 교회와 관련된 영적인 일들 앞에 깊이는 알지 못하지만, 내 의견이 왔다갔다 하지 말아야 한다. 결국은 교회와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게 될 따름이다. 하나님이 세 번이나 당신을 부인할 것이라고 하더라도,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삶을 지탱하는 살길인 것이다.

davidnjon@yahoo.com

서부교계 게시판



목회자아버지학교 연기

오는 8월 6일부터 실시하게 되는 제 14기 미주 목회자 아버지학교 신청자 부족으로 연기한다. 목회자아버지학교측은 스케줄 등을 재 정돈해 다시 공고할 것임을 밝혔다.

▲문의: (714)296-6783 이상훈 목사

나성금관교회 ‘한여름 밤의 찬양축제’

나성금관교회(담임 이석부 목사)는 ‘한여름 밤의 찬양축제’를 개최한다. 일정은 △8월 8일(수) 호산나성가대, 관악단 오토하프 공연 △15일(수) 박종호 장로 초청 공연 △22일(수) 시온성가대, 여성중창단 바디워십팀 공연 △29일(수) 뮤지컬팀(그리움 예수) 공연이며 시간은 저녁 7시30분.

▲문의: (310)973-5106

선교뮤지컬팀 SOW 공연

오렌지카운티 어린이 선교뮤지컬팀 시드오브워십(Seeds Of Worship, SOW 디렉터 에스더 박) 공연이 5일(주) 오후 7시 라미라다 극장에서 열린다. 공연 제목은 ‘라이트 온 타임’(Right on Time)이며 티켓가격은 18달러다. 한편 SOW는 2018-19학년도를 맞아 신입단원을 모집하고 있다. 등록과 첫 연습은 오는 9월 8일 산타페스프링스 SOW스튜디오에서 갖는다. 등록을 원하는 학생의 부모는 이메일(seedsofworship2010@gmail.com)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 (714)904-8434

충현선교교회 설립 33주년 기념부흥회

충현선교교회(담임 민종기 목사) 설립 33주년 기념부흥회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자’라는 주제로 8월 9일(목)부터 12일(주)까지 개최된다. 강사는 이용남 목사(장석교회 원로)이며 일정은 9일(목) 저녁 7시30분, 10일(금) 새벽 5시20분, 저녁 7시30분, 11일(토) 새벽 5시20분, 저녁 7시, 12일(주) 1-3부 예배.

▲문의: (818)549-9191

인랜드교회 설립34주년 성찬예배 및 담임목사 청빙

포모나지역 인랜드교회(1101 Glen Ave)가 담임목사를 청빙한다. 자격은 정규 목사 교육과정(M.Div)을 이수하고 이중 언어가 가능한 자이며 근로조건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이력서, 목회계획서, 설교 2편,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서류마감은 9월 30일까지. 한편 동 교회는 설립 34주년을 맞아 8월 5일(주) 예배시간(오전 7시30분, 9시15분, 11시45분, 오후 1시45분)에 성찬예배를 드린다.

▲문의: (909)622-2324

월드미션대학교 가을학기 신입생 모집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임성진 박사)는 가을학기 신입생 모집을 실시한다. 모집분야는 △신학(준학사, 학사, 석사, 목회학박사) △상담학(준학사, 학사, 석사) △음악학(학사, 석사, 박사) △수료증(유아교육, 가정상담, NGO)이며 지원방법은 인터넷(www.wmu.edu/applicationforms)을 통해 할 수 있으며 모집마감일은 8월 17일(금)이다.

▲문의: (213)388-1000

그레이스미션대학교 학생모집

그레이스미션대학교(총장 최규남 박사)는 가을학기 학생모집을 실시한다. 학위과정은 △학사(BA) △선교문학석사(MAICS) △기독교교육학 석사(MACE) △목회학석사(M.Div) △선교학박사(D.Miss) △교차문화학 철학박사(PhD in Intercultural Studies)이며 서류마감일은 8월 30일(금)이다.

▲문의: (714)525-0088

기독교통일세미나

남북통일을 위한 기독교 모임 커넥트코리아투게더(담임 김의혁 목사, 임봉한 목사)가 주최하는 ‘커넥트 컨퍼런스 2018’이 8월 3일(금)과 4일(토) YNCC 제퍼슨 캠퍼스(150 W. Jefferson Blvd, LA)에서 개최된다.

▲문의: (626)394-9214



이병희목사부부 결혼 50주년 기념 및 출판기념회를 마치고 기념촬영

이병희목사부부 결혼 50주년 기념 및 출판기념회를 마치고 기념촬영

이병희목사부부 결혼 50주년 기념 및 출판기념회를 마치고 기념촬영



한국문화원 이야기가 있는 한국가곡의 밤 공연이 마친후 출연자들과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있다

‘이야기가 있는 한국가곡의 밤’

한국문화원 주최 소프라노 김종숙 사회로

한국문화원 ‘이야기가 있는 한국가곡의 밤’ 음악회가 27일 저녁 7시30분 성황리에 열렸다.

소프라노 김종숙 씨의 사회로 열린 ‘이야기가 있는 한국가곡의 밤’ 공연은 테너 오우영이 ‘목련화’, ‘내

일을 꾸꾸’, 소프라노 이나인이 ‘세월, 그 노을에’, ‘수락산연가’, 테너 양두석이 ‘외딴집’, ‘눈’, ‘바리톤 채홍석이 ‘가고파’, ‘마중’을 불렀다. 이어 이날 특별출연한 소프라노 강혜정 교수(계명대학교)가 ‘두 손에 담겨진 사랑’, ‘동심초’, ‘진달래’, ‘꽃구름 속에’를 불렀으며 공연장을 가득메운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또한 테너 오우영과 소프라노 김종숙이 ‘사랑의노래’, 테너 양두석과 바리톤 채홍석이 ‘남촌’을 불렀다.

이날 공연은 전 출연진들이 함께 ‘희망의 나라로’를 불렀으며 관객들과 함께 ‘보리밭’을 부르고 마쳤다. (박준호 기자)

‘햇불 한민족 디아스포라 세계선교대회’ 개막 “지구촌 삶의 현장서 전도 확장”, 한인·탈북민 2300여명 참석

전 세계 750만 한민족 디아스포라의 선교적 사명을 고취하고 이를 삶에 적용하기 위한 대규모 선교대회가 열린다.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은 29일부터 31일까지 경기도 성남 할렐루야교회에서 ‘햇불 한민족 디아스포라 세계선교대회’가 열린다고 26일 밝혔다. 올해로 6회째 개최되는 선교대회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함2:4)가 주제이며 해외 한인 2000여명이 참석한다. 탈북민 300명도 초청된다.

선교대회는 첫날 저녁 개회예배를 시작으로 메시지와 간증 주제강의 선택강의 순으로 진행된다. 개회예배에서는 김상복 할렐루야교회 원로목사가 ‘한반도의 미래’를

제목으로 설교한다.

오전과 저녁 메시지는 국내의 주요 목회자들이 말씀을 전한다. 손인식(미국 엘바인 베렐교회 원로) 권혁빈(미국 엘바인 온누리교회) 이찬규(독일 프랑크푸르트 한마음교회) 소강석(새에넬교회) 이성희(연동교회) 양병희(영안장로교회) 진재혁(지구촌교회) 김승욱(할렐루야교회) 목사가 각각 설교한다.

주제강의는 탈북민 출신 강철호(북한기독교총연합회) 목사와 강철환(북한전라센터) 이소연(뉴코리아여성연합) 대표가 맡는다. 선택강의 시간에는 안덕원(햇블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 교수, 이상규(고신대) 명예교수 등이 발표한다.

선교대회에서는 통일 콘서트도 열리며 방송인 조혜련 집사의 사회로 탈북민, 고려인, 중국동포 등이 참가하는 찬양, 춤 경연대회 ‘햇불대상’도 진행된다. 130여년 전 한국 땅에 복음의 씨를 뿌린 선교사들과 신앙 선배들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성지순례도 이어진다.

이형자 대회장은 “하나님은 전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들이 자신들이 태어난 곳에서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며 “대회에 참석하는 한인 동포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명히 알게 되기를 기도한다”고 말했다.

이슬람은 18개면, 기독교는 10개면에 소개

중·고등 역사·세계사 교과서 종교편향 대책 세미나 열려

중·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에 이슬람이 편향적으로 기술돼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역사 교과서에 한국 기독교의 근현대사가 소외돼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언급됐다.

진실역사교육연구회(대표 홍영태)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제1회 중·고등 역사·세계사 교과서 포럼을 갖고 이같이 논의했다. 이날 포럼에선 “종교나 이념에 따라 편향되고 왜곡된 교과서를 바로잡아 다음 세대들이 객관적인 역사관과 종교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첫 발제를 한 이동주 선교신학연구소장은 ‘고등학교 세계사(미래엔)가 이슬람을 편향적으로 기술한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사실이 교과서의 편향 사례는 대부분 교과서와 대응소이하다고 보면 된다”면서 “이슬람은 18개면, 개신교는 로마 가톨릭과 정교회까지 합쳐 ‘크리스토프’라 통칭해 고차 10개면에 걸쳐 소개하고 있다”고 했다. 무엇보다 “기독교인들에게도 낯선 ‘크리

스트교’로 통칭하는 교과서는 반드시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한국에서 가장 교인이 많은 종교인 개신교와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불교 순으로 역사 기술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성욱 아세아연합신학대 박사는 중학교에서 사용하는 9종의 교과서에 기술된 이슬람 부분만 별도로 분석했다. 그는 “모든 교과서에 이슬람을 평화와 화해의 종교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슬람국가(IS) 등의 테러만 봐도 사실과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다”면서 “미화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교과서에 버젓이 소개된 이슬람 미화 사례들도 소개했다. “알라는 모세에게 성서를 주었으며 마리아의 아들 예수에게 성스러운 표지를 주고 성령으로 그의 힘을 강하게 만들었다”(교학사), ‘이슬람교는 우상 숭배와 다신교를 부정하고 인간은 평등하므로 알라에 귀의하면 누구나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쳤다’(금성출판사), ‘모세와 예수, 무함마드도 인간으로 다 같은 예언자일 뿐이며 이러한

점에서 예수를 신으로 인정한 크리스트교와 다르다(미래엔) 등이다.

근현대사 속에서 큰 역할을 한 기독교가 아예 역사 교과서에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명수 서울신대 현대기독교역사연구소장은 “현재 중등학교 역사 교과서 중 종교 분야의 가장 큰 문제는 기독교의 역할에 대해 통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근현대사 속에서의 기독교 역할이 배제돼 있다”고 지적했다. 박 소장은 “독립운동만 해도 기독교와 천도교가 중심이었는데 이를 배제하면 제대로 된 한국사를 통사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홍영태 대표는 “교육부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왜곡된 역사가 아닌 오직 진실만을 담은 역사 교과서와 세계사 교과서 기술을 해 달라”면서 “왜곡되고 편향된 이슬람 소개와 심지어 이슬람 포교를 의심할 만한 내용이 담긴 교과서를 바로잡기 위해 시민·종교 단체들이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건강한 다음세대를 양육하기 위한 토양을 만들기 위해 범국민적 홍보활동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진실역사교육연구회는 이날 포럼 전체를 유튜브로 생중계했다.

목사도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민족 운동가들의 심정으로 나라를 살리고 잘못된 성평등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목숨이라도 바치겠다는 마음으로 혈서 쓰기에 동참했다”면서 “국민 정서를 무시한 법무부 박상기 장관과 황희석 인권국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날 임석철 아주대 산업공학과 교수는 “감상적 분위기에 편승해 동성애를 합법화한다고 해서 동성애가 치유되는 게 절대 아니다”면서 “육체적·정신적·영적 치유를 통해 동성애자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게 절대 인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은 대한민국 역사를 망친 주인공으로 남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수정(30·이화여대 통역번역대학원 2년)씨는 “법무부가 NAP를 수립할 때 친동성에 단체 등만 불러 비공개로 18차례 간담회를 가졌지만 동성애에 비판적인 단체는 모두 배제했다”면서 “법무부는 애초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생각이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씨는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희는 대답만 하라”는 법무부의 일방통행식 행태는 국민을 우롱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국민이 이런 잘못된 정책을 받아들일 이유는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최가은(25·한동대 4년)씨도 “사회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 행위가 발생한다는 명확한 근거는 없다”면서 “그러면서도 NAP는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성평등 문화 확산, 성소수자 관련 어휘 삽입, 성평등 인권교육 실시 등 동성애자를 위한 특화정책으로 가득 차 있다”고 지적했다.

나승현(23·경희대 3년)씨는 “NAP가 난민에 필요 이상으로 적극적인 자제를 취하고 진짜 난민이라 할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선 피상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면서 “법무부는 잘못된 인권계획을 폐기하고 북한 주민과 이탈주민을 위한 인권정책부터 제대로 챙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회의 기둥’ 집사가 줄고 있다 예장통합 교세통계 공개...세례교인, 등록교인보다 줄어

집사가 줄고 있다. 교회의 기둥이자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서리집사 안수집사가 동시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에 더해 세례를 받은 교인이 그저 등록만 한 교인보다 지난해 처음으로 더 많이 줄어들었다. 한국교회에 던져진 또 하나의 위기 신호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통계위원회는 2017년 말 기준 교세 현황을 30일 공개했다. 전국의 지교회가 지난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보고한 교인 수 등을 노회가 취합해 총회가 집대성한 통계로 다른 교단에 비해 공식력이 높다. 예장통합은 백중세인 예장합동 교단과 함께 한국 장로교를 이끌고 있으며 두 교단 소속 교인은 국내 기독교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예장통합의 서리집사는 2017년 말 59만3184명으로 1년 전인 2016년 말 60만7062명보다 1만3878명 감소했다. 2015년 61만5153명과 견주어서는 2년 새 2만1000여명

줄어든 기록이다. 서리집사는 세례교인으로서 교회 등록 후 1년 이상 집사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경우 받게 되는 직분이다. 제직회 멤버로 교회의 중요 결정을 함께하며 봉사로 헌신하는 성도들이다. 안수집사 역시 7만5805명으로 전년 대비 140명 줄었다. 안수집사는 2016년 말까지 증가세를 유지해 왔는데 이번엔 감소로 돌아섰다.

반면 목사 장로 권사의 수는 증가세를 보였다. 권사 직분이 1년 만에 1,486명 늘어난 데 대해 총회 관계자는 “남성보다 교회에 더 헌신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직분이 정제돼 있던 여성 권사들의 위상이 정상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예장통합 전체 교인 수는 271만 4314명으로 2016년 대비 1만6586명 감소했다. 2010년 285만명을 정점으로 완만한 내리막길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올해 감소한 교인 중 예 세례교인의 수가 1만6053명이

었다는 점이다. 등록만 하고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원입교인’보다 세례교인의 이탈이 월등히 높았던 셈이다. 총회 관계자는 “세례교인 이탈이 원입교인 이탈보다 많았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서리집사의 교회 이탈도 이와 무관치 않다”고 밝혔다.

집사 수 감소는 교회 내 고령화 현상과도 맞닿아 있다. 예장통합 교회 통계를 연령대별로 재분석해 보면 60대 이상 교인이 전체의 25.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50대 16.58%, 40대 17.23%, 30대 13.07%, 20대 10.05%에 비해 훨씬 높다. 60대 이상은 교회 직분에서 은퇴하는 경우가 많은데 젊은이들로 잘 채워지지 않는 것이다.

목사와 장로는 늘어나는데 서리집사와 교인이 줄어드는 건 교회를 역삼각형 구조로 만들어 불안정성을 초래한다. 서울 서초구 온누리교회 조용선 목사는 “한국교회가 마을 및 이웃과 함께하는 모습이 적을 때 젊은이들이 교회의 모습에 실망하고 이탈하게 된다”면서 “이웃 그중에서도 영한 자를 중심으로 섬기고 배려해야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은혜로교회 신옥주씨 구속

고위간부 3명과 함께 특수상해 등 혐의 조사

과천 은혜로교회 신옥주씨가 구속됐다. 남태평양 피지에서 출국을 막기 위해 신도들을 감금하고 집단 폭행했다는 혐의에서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관계자는 26일 “신씨가 다른 공범 3명과 함께 26일 오후 6시 범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면서 “집행부인 공범들에 대한 추가수사

를 통해 혐의를 밝혀낼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범죄수사대는 24일 입국한 신씨와 공범을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인천공항에서 긴급 체포한 바 있다.

신씨는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며 ‘환란 날의 피난처가 남태평양 피지’라면서 400여명의 신도들과

함께 집단생활을 해왔다.

탈퇴자들과 피해 가족들은 은혜로교회 신도들이 이탈하려는 신도를 ‘타자마당’이라는 이름으로 집단폭행 하며, 신씨를 우상화하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은혜로교회와 신씨는 신천지에 수교증거장막성전 식의 비유풍미를 하며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130년 한국교회 역사를 부정한다는 등의 이유로 2014년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신 총회에서 이단으로 규정됐다.

목회자 30여명 NAP 폐기 촉구

부산 대전 울산 등서 올라와 청와대 앞서 혈서

목회자 30여명이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 폐기를 촉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혈서를 썼다. 최근 김원평 동성애 동성혼 개헌반대 국민연합(동반연) 실행위원장과 영안섭 전문위원, 김혜윤 건강과가정을 위한학부모연합 대표의 사박에 이어 이번엔 목회자들이 혈서까지 작성한 것이다.

부산 대전 울산 김해 안산 등에서 온 이들 목회자는 26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부근에서 열린 ‘NAP 문제점 규탄 및 폐지촉구 국민대회’에 참석해 손가락에서 흘린

피로 흰 종이에 ‘성평등 결사반대’ ‘차별금지법 결사반대’ 등의 문구를 썼다.

한국교회 역사상 목회자들이 청와대 앞에서 혈서를 쓰는 처음이다. 혈서 작성에 참여한 윤치환(안산 사랑의교회) 목사는 “목회자들이 혈서까지 쓰면서 NAP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은 정부 정책이 성경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데다 한국교회 성도들의 종교·양심·사상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남승제(대전 주가사랑하는교회)

“NAP 통과 땀 결사적으로 싸울 것”

교단장회의 “성평등 문구를 양성평등으로 교체” 촉구

한국교회 주요 교단장들이 동성애와 동성혼을 옹호·조장하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을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대학생들도 청와대 앞에서 양성평등 정책에 위배되는 NAP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국교회교단장회의는 30일 서울 서초구 웨라튼서울팔래스강남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교계 차원의 NAP 저지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최기학(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이영훈(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여의도순복음) 안희목(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장 등 교단장들은 “동성애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성평등 정책이 NAP에 들어가는 것을 결사반대한다”면서 “NAP 내 성평등 문구를 모두 양성평등으로 교체하라”고 촉구했다.

교단장들은 또 “한국교회는 동성애를 포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추진에 반대한다”며 “오는 7일 국무회의에서 NAP가 통과되는 등 우리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한국교회는 결사적으

로 싸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총회장은 “NAP가 장애인과 소외계층 등을 보호한다는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만큼 그 속에 들어 있는 독소조항을 짚어서 내 국민에게 바로 알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 총회장도 “한국교회는 사회적 평등, 젠더평등이 아닌 생물학적으로 남녀를 뜻하는 양성평등을 적극 지지한다”면서 “성명서와 포스터, 보도자료 등을 통해 NAP의 문제점을 적극 알리자”고 당부했다.

교단장들은 향후 시민단체와 연합해 대통령 면담 요청, 청와대 항의 방문 및 기자회견, 대규모 반대 집회 개최, 전국 교회에 NAP 반대 현수막·포스터 부착, NAP를 반대하는 전국 교회 설교 및 1000만명 서명운동 전개, 비상 기도주간 선포 등 실행 저지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전국 34개 대학 54개 단체가 소속된 ‘동성애 동성결혼 허용 개헌반대 대학청년연대’ 회원들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NAP 제정 과정의 절차적 하자과 내용상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규영 교수, 동유럽 사회주의 체제와 시민사회 연구

“사회주의 국가엔 시민사회가 없다고 간주하는 이들이 적지 않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 정권이 점차 취약해져 시민들의 저항이 일어난다면 구심점은 지하교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이 소장은 “이제는 노방전도보다는 SNS 사역이 효과적인 시대”라며 “많은 청년이 교회를 찾을 때 발품 대신 인터넷과 SNS 등에서 손가락으로 검색해 교회를 찾는다”고 말했다. 이에 그들의 시선과 관심을 잡을 수 있는 콘텐츠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SNS는 시간과 장소를 넘어선 활용이 가능하다. 주보와 광고, 큐티 모임, 회의 등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청년 주보를 SNS 방식으로 만든다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에게도 자연스럽게 전할 수 있다.

콘텐츠를 제작할 때 무엇보다 강조점이 필요하다. 주목기를 잘 살

“北정권 취약해져 시민 저항 일어나면 구심점은 지하교회가 될 가능성 크다”

등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 체제와 시민사회를 연구한 이규영(62)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의 말이다. 이 교수는 1987년부터 6년간 독일 하이델베르그대 정치학과에서 동구권 체제 및 북한 사회를 비교·분석하는 비교공산주의를 연구했다. 현재는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겸 학내 국제지역연구소장, 기독교계 통일운동단체 한국과 벗 재단(KHN) 학술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역촌성결교회 장로이기도 한 그를 지난 20일 서울 마포구의 연구실에서 만났다.

이 교수는 “폴란드의 경우 사회주의 붕괴 과정에서 정권에 억압받던 가톨릭교회가 사회 저항의 구심점이 됐다”며 “북한도 체제 취약성이 자주 노출되면 대항세력으로 지하교회가 출현한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제가 이 분야를 연구하며 얻은 확신”이라고 강

조했다. 이어 “가톨릭 국가였던 폴란드와 단순 비교하긴 어렵지만 북한에도 엄연히 지하교회가 존재하는 만큼 체제 전환기에는 이들이 일정 부분 역할을 할 것이라 본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독일 유학 당시 베를린 장벽 붕괴와 독일 통일을 경험한 그의 연구와 통일관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다. 본래 사회주의 체제 발전 가능성을 연구했지만 장벽 붕괴 이후 사회주의 체제 전환과 시민사회로 논문 주제를 바꿨다. 외국인 유학생 위주로 진행 중인 ‘영화를 통한 한반도 통일 공감대 형성 및 확산’ 프로그램

램도 이때 얻은 교훈에서 착안한 것이다. 전범국 독일이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의 동의하에 통일됐듯 한반도 통일도 남북한만이 아닌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향후 이들 국가에서 ‘지한파’가 될 유학생에게 통일의 당위성을 설득하기 위해 이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프로그램은 지난 11일 서울 마포구 신촌성결교회에서 영화 ‘굿

바이 레닌’을 상영하며 첫 문을 열었다. 내년 1월까지 진행되는 프로그램에는 영화 상영 이후 다가를 통일시대 사회 통합 방안을 듣는 자리도 마련돼 있다. 대영호전 영국 주재 북한공사와 주한 외국 대사 및 영사 등이 강사로 나설 예정이다.

이 교수는 북한 체제를 선인장에 비유하며 통일의 시기를 남한이 조절하거나 가능하는 것은 어렵다고 했다. 선인장이 겹으면 단단해 보여도 속이 썩으면 하루아침에 무너지듯 북한도 핵 때문에 강해 보이지만 내부 부패 및 체제 취약성으로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는 성경에 등장하는 ‘열 처녀 비유’ 속 지혜로운 처녀들처럼 미리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교도소 선교칼럼 (47)

이영희 목사

교도소 교목, TPPM대표



3. 놀라운 간증

“데오도어 산체스는 내가 사역하라고 부른 아들이다. 그에게 설교할 기회를 주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에게 설교기회를 주었다니 놀라운 간증을 했다. 하나님은 산체스가 혼자만 간직하고 있던 간증을 세상에 알리기를 원하셨다고 믿는다.

“뉴멕시코 형무소”-데오도어 산체스

교도소를 수없이 들락거려다가 나는 다시 감옥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다짐하고 모두에게 내가 기독교인임을 밝혔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했는데 그 중에는 갱단에 속한 사람들도 있었다. 교도소에서는 내가 갱에 속해 있지 않았지만 갱들하고 말하는 것을 보고 내가 조폭 멤버라고 오해했다. 결국 나는 뉴멕시코의 라스쿠르소로 보내졌다. 이곳은 악명 높은 뉴멕시코 갱단이 장악하고 있는 무시무시한 감옥이었다. 하루 24시간 독방에 감금되어 있었고 샤워를 할 때는 두세 명의 교도관이 수갑을 채워서 마치 개처럼 샤워실로 데려갔다. 감옥 안의 갱단 멤버들은 내가 같은 단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나를 괴롭히기 위해 하루종일 고통치며 내가 자지 못하도록 벽을 교대로 두드렸다.

두 달이 지난 후 그들의 광기 어린 소리를 들으며 누워있는데 갑자기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주의 깊게 들어보니 거친 스페인어 악센트를 가진 사람이 말을 걸어왔다. 환청인가 의심도 했지만 내 아래층에 있는 사

람이란 걸 알게 되었다. 내 이름을 몰랐고 자신은 데이빗이라고 소개한 그는 좀 잠잠해지면 서로 알아가면서 이야기를 해보면 어떻겠냐고 물었다. 혹시 나의 정보를 얻기 위한 속임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웠다.

그러나 계속 대화를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의 문이 열렸다. 그는 마약 중개인을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 받았으나 기독교인이 되어 20년 넘게 복역 중이며 조폭 멤버가 아니라고 말했다. 데이빗은 내게 성경을 가르쳐 주었다. 한 장을 먼저 읽고 난 후에 설명을 해주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리고 게임을 통해 매일 주요 구절을 암기를 할 수 있도록 격려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치러 사

4. 벽에 머리 박는 여자

시간이 있을 때마다 나는 여자 재소자 방에서 기도모임을 갖는다. 기도 후에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개인적으로나 혹은 그룹으로 상담을 하는데 상당히 유익한 시간이다. 감방의 리더를 파악할 수도 있고 또 그 안에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도 해결할 경우도 여러 번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교도관이 제인이라는 여인과 상담해줄 것을 부탁했다. 계속 벽에 머리를 짚으며 우는 바람에 교도관이 나에게 상담을 의뢰한 것이다.

“목사님, 정말 두려워요. 교도소에 처음 오게 되었고 이곳 사람들이 나를 해칠까봐 너무 무서워요.”

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3:16)가 한 암송구절이었다.

데이빗은 컨닝하지 말라고 했다. 놀랍게도 그는 내가 얼마나 빨리 그 구절을 대답하는지,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아니면 내가 표현하는 방법이 어떤지에 따라 그 사실을 알아냈다.

어느 날 데이빗이 내 이름을 부르며 말했다,

“데오, 혹시 너도 편견 같은 거 가지고 있어?” “어떤 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흑인에 대해서는?” “난 누구와도 편견이 왜?” “그냥 물어본 거야.”

나는 혼자, ‘참 별일일세’ 하고 생각했지만 이내 잊어 버렸다. 어느 날 데이빗이 소리 지르며 환호성을 질렀다.

“데오, 짐을 싸. 이제 내가 떠나야 할 때가 됐어. 하지만 떠나기 전에 직접 얼굴 보면서 송별회 선물을 주고 싶어.”

나는 이제야 1년 동안 배출구 대화상대를 만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서둘러 짐을 싸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그곳에서 내가 태어나서 본 사람 중 가장 크고 검은 피부를 가진 남자를 보았다. 거친 스페인 억양으로 오랫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준 사람이 흑인이었다니... 깜짝 놀랐다.

“내 이름은 데이빗 월트리아.” 우리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누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그는 나에게 작별 선물로 성경을 선물했다. 그 성경은 20년 이상을 죽음과 같은 형무소에서 보낸 데이빗이 사용했던 것이었다. 나는 아직까지도 그의 성경책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다.

제인은 그 말을 하면서 흐느끼고 있었다. 그 방에는 영적인 리더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미처 알지 못한 그녀는 그저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것이다.

“그 방에는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방에 들어가서 인도하는 기도모임에 참석해 봐요.” 리더들과 함께 기도회를 가진 후 제인과 다시 만나서 어떤지 물어보았다.

“모임에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내 머리도 손질해 주었어요.”

벽에 머리를 박는 대신 그녀는 주님 안에서 영적인 성장에 집중하게 되었고 안정된 마음으로 지내게 되었다.

yeonghui.mcdonald@gmail.com

선교 편지

필리핀

1. 여름이 지나가면

여기 필리핀의 남부 잠보양가 지역은 적도에서 가까워 늘 덥지만 우기 철에는 비가 자주 내려 이른 아침과 저녁에는 생활하기에 괜찮습니다. 2018년 올해 한국의 여름은 사상 처음으로 너무 더워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필리핀 북쪽 지역은 이번에 여러 태풍과 많은 폭우로 인하여 마을이 침수 되는 곳이 많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은 공립학교로 피신을 하였습니다. 공립학교는 공부해야 하는 학생들과 마을 피난민으로 인하여 학교가 어수선하지만 정부에서 대책

은 특별히 없습니다. 여름이 지나가면 가을이 곧 오겠지만 그 가을이 멀게만 느껴지는 불편한 여름에 건강 잃지 않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2. 여름성경학교(VBS) 4월 9일-13일

매년 여름방학을 하면 먼저 준비하는 것이 여름성경학교입니다. 여름성경학교 기간은 학교 주변과 이웃 마을 학생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여름성경학교를 하기 전에 학교 주변의 마을을 방문하여 여름성경학교에 학생들을 초청하였습니다. 특별히 무슬림

마을은 우리 부부가 앞장을 서서 선생들을 데리고 함께 방문을 하였습니다. 대체적으로 여기 잠보양가 지역은 기독교인들과 무슬림들 간의 불신의 벽이 높아 서로 왕래가 없고, 아무런 관계도 하지 않습니다.

선생들은 무슬림 마을 방문하는 것에 대하여 두려운 마음이 늘 있고 경험이 없다보니 가능하면 산속의 수바는 종족 아이들과 자바카노, 비샤아 학생들에게만 전도를 하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반면에 우리 부부의 주된 사역 종족은 따우숙 무슬림 종족 사람들이기에 집집마다 방문하여 학생들에게 이번 여름성경학교에 참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에는 최근 몇 년 전보다 더 많은 무슬림 학생들이 참여하여 5일 동안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번에 여름성경학교에 출석한 학생들은 150여명 가량 됩니다. 우리 새희망 학교의 주된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학교로서 교육과 복음전파를 할 수 있어 참으로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3. 동서남아시아 선교대회 참석: 5월 14-17일

2년마다 동서남아시아 선교사들의 선교전략 대회가 있습니다. 이번 5월에는 캄보디아의 앙코르에서 모임이 있어 저희 가족 3명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저희 선교지 잠보양가에는 한국인들의 여행금지 지역이라 한국 사람들이 없어 교제가 없는데 이런 모임에 참석하면 많은 분들을 만나 교제할 수 있어 참으로 기쁩니다. 다른 선교사들의 선교 사역 이야기를 들으며 도전을 받기도 하며, 다른 문화권에서 여러 방법으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선교사들의 모습 속에 “열심히 더 사역하여야 하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외진 선교지에서 20여년 넘게 고립되어 사역하다보면 나 자신을 볼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모임을 통해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4. 2018년 새학기 시작 6월 5일

올해부터는 새희망 학교의 학생들 수업료를 올려 받기로 결정을 하여 새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갈수록 물가는 많이 오르고 저희 학교의 수업료가 너무 작기 때문에 수업료를 올려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생각에 필리핀 전체의 수 천 개의 사립 학교 중에 우리가 운영하는 새희망 학교의 수업료가 제일 작은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80페소를 받았는데 올해부터는 20페소(한국 돈 420원, 달러 40센트)를 올려 받았습니다.

(14면으로 계속)



캠벌랜드 장로회 동부한인노회 2018년도 목사 고시 공고

Cumberland Presbyterian Church East Coast Korean Presbytery
2018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ination Announcement

2018년 9월 9일과 10일에 시행될 ‘목사 고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자는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응시 자격 (Candidacy Qualification)

- 본 총회 직영 신학대학 및 총회가 인정하는 정규 신학교 M.Div학위 과정 졸업한 자 또는 2018년 도 졸업 예정자
- 본 노회에 가입한 목사 후보생으로 총회 주관의 PAS 과정을 필한 자와 수료예정자
- 개혁주의 신앙이 투철한 무흠입교인으로 확실한 소명과 영적지도력을 갖춘 자

2. 고시 일자 및 장소 (Examination Date and Place)

- 고시일자: 2018년 9월 9일~10일(가을 정기노회 기간)
- 고시장소: America's Keswick (601 Route 530, Whiting New Jersey, 08759)

3. 고시 과목 (Examination Subjects)

- 필기고사: (1)총회헌법 (2)교회정치 (3)성경 (4)면접고시 (본 교단 PAS 교육 수료자는 1번, 2번 고시면제)
- 제출고시 내용
 - 소논문: 크리스천이 불신자와 무엇이 달라져야 하나?
 - 분량: Letter Size 20 Page 이상
 - 참고도서는 10권 이상
 - 논문 작성법에 준한 것만 유효함
- 주해: 롬 8장 1절 -11절
- 설교: 롬 8장 1절 -11절
 - 위 주해의 본문을 바탕으로 20분가량의 설교원고 작성
 - 규격: 소논문과 동일 규격
- 면접고시
 - 논문과 주해에 대한 질의
 - 경건생활, 가정생활, 연구생활, 목회윤리, 사회윤리 등에 대한 질의
 - 위의 본인이 작성한 원고로 5분 설교

4. 응시 서류 (Accompanying Documents)

- 고시청원서
- PAS교육 수료증, 강도사 인허증 (해당자)
- 응시자 및 가족사진 각 1장씩, (6개월 이내의 5X7 사이즈)
- 고시료 \$50 (숙박비 포함)

5. 서류 제출요령 (Instructions for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Submission)

- 모든 서류 마감은 8월 26일까지

6. 응시 서류 제출처 (Submission Address)

37 Arizona Ave, Syosset NY 11791

7. 기타문의 (Contact Persons for information)

1) 고시부장: Jin Soo Park
Cell: 516) 815-1164. E-mail: jpkorea@hanmail.net

주후 2018년 6월 20일

캠벌랜드 장로회 동부한인노회

노회장: 양부환 목사 고시부장: 박진수 목사

(13면에서 계속)
4년 전에도 이 정도의 수업료를 올려 받았는데 몇몇 학부모들은 학교 앞에서 항의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올해 등록 인원은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146명인데 수업료를 올려 받은 후에 새로 전학 온 학생들은 7명이었고,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학생들은 15명입니다. 필리핀이 비록 가난하지만 빈부의 격차가 심하다보니 어디에 기준을 잡느냐에 따라 교육의 현실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5. 후원하는 학생들 시내 구역
우리 학교 안에서 정규적으로 후원하는 학생들은 5명입니다. 5명 모두 생활 형편이 너무 어려워 누군가의 도움이 없다면 공부하기가 어려운 학생들입니다. 새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시내의 큰 백화점에 가서 점심 식사를 하였고, 기념사진도 찍었고, 학용품과 학교 교복을 사주었습니다. 림빠빠 마을에서 시내의 새로 생긴 큰 백화점 KCC까지는 1시

간 30분이 걸리는데 대부분 시내를 처음 가는 학생들이라 신경이 좀 쓰였습니다.
그 중에 한명 디제이는 몸이 너무 약하여 차를 타고 오고 가던 중에 구토를 많이 하여 얼굴이 하얗게 변하여 갔고 나중에는 목에서 피가 나올 정도로 힘들어 하였습니다. 점심 식사 시간 중에 다른 학생들이 맛있게 음식을 먹을 때에도 디제이 학생은 음식을 먹지 못하고 옆에서 물그리미 쳐다보지만 하였습니다. 이날 디제이 학생은 너무 많이 구토를 하여 맛있는 음식도, 사진 촬영도, 만사가 귀찮았을 것 같습니다. 옆에서 학생들을 인솔하였던 림 선생은 너무 놀라서 정신이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6. 누트리션 행사
필리핀에서 7월 말은 모든 학교에서 누트리션 행사를 합니다. 이날 행사는 야채를 이용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거나 홍보하는 행사입니다. 생활이 넉넉한 다른 사립학교 학생들은 학교 도시락 반찬으로 매일 닭튀

김이나 소시지, 고기를 가져와 먹는 반면에 가난한 학생들은 작은 생선 한 마리를 가져와 간장에 부어 밥을 먹습니다. 대부분 필리핀 학생들은 야채를 잘 먹지 않기에 7월 학교 행사로 진행됩니다.
이날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급식을 하였습니다. 학교에서 계란, 소시지, 닭고기를 요리하여 나눠주고 밥만 학생들이 직접 가져와 먹었습니다. 영양이 늘 부족하다보니 여기 필리핀 5, 6학년 학생들의 키가 한국의 초등학교 2, 3학년 학생들처럼 키가 작습니다.
우리 림빠빠 마을의 학생들 부모는 대부분 어부라 생선을 많이 먹습니다. 태풍이 많이 불 때는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는 학교에 도시락을 가져오지 못하거나 생선 머리만 가져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학생들의 영양 상태를 옆에서 지켜보면 빈부의 차이가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학교 행사를 통하여 생일이 아니면 먹지 못하는 음식을 학교에서 조금이라도 제공해주어 부모들이 고마워합니다.

7. 헌타이 집에 와 있음

큰 아들 헌타이는 대학교 여름 방학을 맞이하여 한 달가량 집에 와 있습니다. 올해 한국 더위는 너무 더워 사람들이 뭉 뭉 바를 정도로 힘들어 하고 있는데 헌타이는 필리핀 집에 와서 잘 쉬고 있으며 사역지에 가서 부모님을 도와주고, 시 날 날 운전 연습을 하여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열악한 현지 전기 사정으로 정전이 자주 되어 답지만 그래도 여기가 고향이기에 좋아합니다.

동생 준탁이도 형이 집에 와 있으니 좋아합니다. 준탁이도 내년 3월까지만 여기 잠보앙가에서 고등학교 1학년 공부를 할 것이고 내년부터는 마닐라에 가서 고등학교 2, 3학년을 공부할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 부부만 선교지에 남게 됩니다. 시간이 참으로 빠르게 지나갑니다. 여기 잠보앙가가 한국인 여행금지 지역이지만 부모가 있기에 헌타이가 와도 마음 편하게 쉴 수 있는 것입니다.

- 기도 제목
1. 선교지에서 늘 안전하게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2. 예배에 무슬림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여 예수님에 대해 알아갈 수 있도록
 3. 한국에서 헌타이 대학 생활에 잘 하도록
 4. 새희망 학교 선생 8명이 학생들에게 사랑과 인내로 교육할 수 있도록(대부분 무슬림 학생들이 거칠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오정운 공운자 선교사 드림
ohgongtak@hanmail.net

기독교경영 전략

기독교경영 전략(Christian Business Strategy) 강의 (21)



제임스구 교수
(그레이스미션대학교 행정처장)

성경적 마케팅 전략의 성경적 원리

9. 미래를 위해서 계획하는 것

창세기 처음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성경을 연구하면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셨으며, 아직도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명백히 알게 된다. 우리는 계획을 세워야 하지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성경은 계획 수립에 반대하지 않는다. 사실, 성경은 그런 계획의 설계나 실행 가운데서도 하

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6:21 “네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11. 전도하는 것

“전도하라”는 원리는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다. 바로 성령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활동하는 시장을 포함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개인적 대변자가 되도록 권능을 주고 있다.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받는 사람 입술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13. 올바른 마음 자세(Right heart attitude)를 가지라

우리는 바른 행동을 하고 바른 말을 듣고, 말하고 또한 어느 정도 성공을 할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나 우리 이웃에게 있지 않고 자기 '자아'나

계획의 수립과 실행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의지함이 중요 삶에서 그리스도 개인적 대변자로 바른 마음자세 가져야

나님께 의지하는 것의 중요함을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다.

잠언 16:9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시니라.”

10. 세상을 사랑하지 말 것

마케터는 사람들을 세상이나 세상의 많은 물질에 열중하도록 이끄는 역할에 대해 충분히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리는 상품 제공 및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통해서 영원한 “하늘에 있는 보물” 보다는 “세상에 있는 재물”을 위하여 보다 노력하도록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마태복음 6:19-21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썩고 동록(銅綠)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6:20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저기는 썩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사도행전 1: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12. 지혜를 간구하는 것

우리는 또한 성경을 통하여 지혜에 대한 필요성과 지혜의 간구,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지혜를 주시는 예를 볼 수 있다. 마케터들에게 직면하게 되는 많은 상황에 대해서 성경에서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할 수 있기에 지혜를 간구하는 것은 마케터들에게 중요한 원리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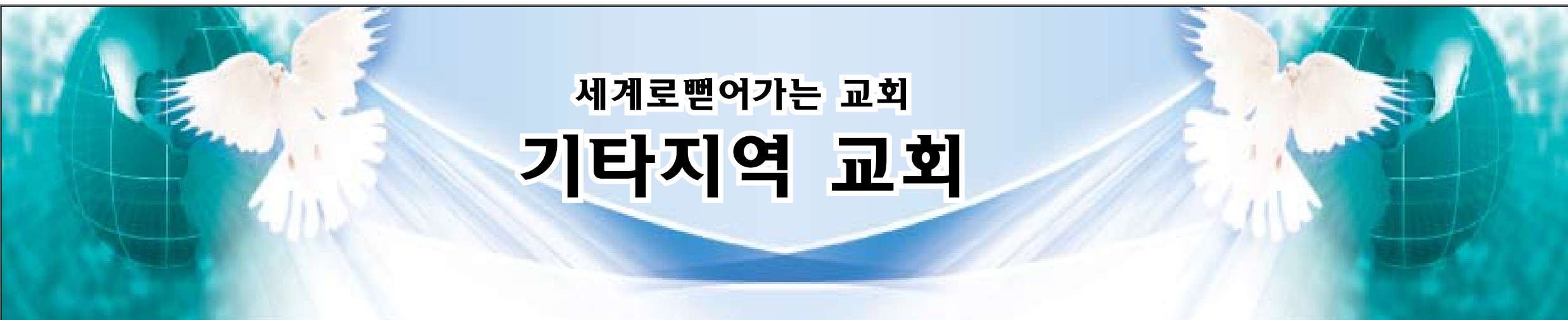
잠언 2:6 “대저 여호와와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3:13,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4:5,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사도행전 6:3 “형제들이 너희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우리들의 수고는 모두 쓸모없는 것이 된다. 올바른 마음자세를 갖기 위한 간구와 성경적 원리들을 마케팅 활동에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기도해야 한다.

엢 6:5-7 “종들이 두려워하고 뿔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6:6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6:7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골로새서 3:22-23, “종들이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3:23,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dr.jameskoo@yahoo.com



<p>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오후예배: 오후 2: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Tel: (206)579-7576, Fax: (2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p>	<p>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222-0691, 267-471-7777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www.omvchurch.org</p>	<p>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풍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아 열 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오후예배: 오후 8:00 Tel: (501)920-1512, Fax: (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http://www.jehs.org</p>	<p>벤엘교회 담임목사: 백신중 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영양):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461-1235, Fax: (410)461-6823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http://www.bethelchurch.org</p>	<p>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양예배: 오전 11:3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집회: 오후 8:0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오후예배: 오후 8:00 주일, 유년, 종교동부: (주일)오전 11:00, (금) 오후 8:00 Tel: (508)435-4579, Fax: (704)529-0800 2 Main St., Hpkinton, MA 01748</p>	<p>샬럿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 아침예배: 오전 10:45 토요새벽기도: 새벽 6: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대학청년부: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8:00 주일, 유년, 종교동부: 오전 10:45 중, 고등부예배: 오전 10:45 Tel: (704)877-6642, Fax: (704)529-0900 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p>	<p>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p>
<p>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영양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오후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월-금) 토요일: 오전 6:30 Tel: (206)527-0981, Fax: (206)524-1746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www.kpccseattle.org</p>	<p>안다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702)749-9929, Fax: (702)778-6876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www.omvchurch.org</p>	<p>알칸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예배: 오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501)920-9049, 시애틀 (501)425-5178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www.jehs.org</p>	<p>앵커리지베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 주일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www.jehs.org</p>	<p>엘파소열린문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양)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 주일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Tel: (915)755-1490, 시애틀 (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p>	<p>영성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운영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부흥예배: 오후 2: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542-0288, Fax: (215)542-9037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p>	<p>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p>
<p>킬린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현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오후예배: 오후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청년모임: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Tel: (254)535-1842(H), (254)501-4933(C) 1000 E. Valet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p>	<p>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www.mpcow.org Tel: (703)941-4447, Fax: (703)941-4448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p>	<p>주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15 수요오후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www.jkc.org Tel: (804)560-7500, Fax: (804)560-7514 10201 Robius Rd., Richmond, VA 23235</p>	<p>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영양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1시 수요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화-토) Tel: (253)536-8675, (253)888-9249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www.laccmcrc.com</p>	<p>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조진모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 원년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화-토) Tel: (215)927-0630, Fax: (215)927-0643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www.kucc.org</p>	<p>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p>	<p>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p>

Food in Bible-소금 (1)



최성은
(Ph.D, RD, 퀸즈칼리지 교수)

연재를 시작하며

저는 식품의 맛(taste)에 대해 연구하는 식품학자이며 한국 영양사 자격증과 미국의 영양사 자격, Registered Dietitian(RD) credential을 소유한 Nutritionist입니다. 제가 성경속의 음식(Food in Bible) 연재를 시작하며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렇게 식품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이 길로 인도해주시고 저에게 전공에 대한 열정과 사명감, 그리고 성경속의 음식(Food in Bible)을 연구하고자 하는 꿈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에서의 첫 수업(그것은 전공 수업이 아니라 교양 철학수업이었

번 채식주의나 어느 한 유행 다이어트(diet)의 옹호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성경 속으로의 음식 여행을 시작해볼까요?

소금(salt)에 대하여

소금은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무기질 중 하나이며 인류가 이용하는 가장 오래된 조미료로서 기원전 6000년경부터 이용되어온 것으로 추정된다.

소금은 염화나트륨이 주성분인 백색이고 짠맛을 띤 결정체로서 음식의 기본적인 맛을 낼 뿐 아니라 단맛이나 신맛을 내는 감미료와 산미료와는 달리 다른 물질로 거의 대체시킬 수 없

습이 있었고(아비멜렉이 그 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사9:45), 사람이 식은 마음의 표현으로 소금이 사용된 것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다(장차 모양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쥘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습2:9).

소금은 방부력을 가지고 있어서 음식에 저장성을 부여해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구약성경에서는 소금을 씌지 않고 나쁘게 되지 않게 하는 데와 성결하게 하는데 사용하였다(엘리사가 가로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

인간 생명유지에 꼭 필요한 작은(소)금, 대체불가능 조미료 향미증진제, 방부제 역할... 성경에 신생, 재생, 부활의 상징

습니다)에서 교수님이 강의를 시작하며 인용하신 "You are what you eat" 이란 문장을 듣고 식품 영양학을 사명감을 가지고 제 전공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그 교수님은 물론 철학적인 의미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었지만 식품영양학을 전공하는 저에게 그것은 식품영양학을 내 일생의 즐거운 의무로 삼게 만드는 중요한 말이 되어 다가왔습니다.

자기가 먹은 대로 이루어질 사람의 몸, 좋은 것을 먹으면 좋게 만들어질 사람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좋은 먹거리를 알리고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저의 일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우리 아시아 문화(Asian culture)에서는 약식동원(藥食同原), 약과 음식은 근원이 같다는 개념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데, 이 개념 또한 건강에 대한 음식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것으로서 음식을 포함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사상과 맥이 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음식의 선택이 건강에 끼치는 영향이 크므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토록 중요한 음식 선택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흥미로운 작업이라 생각되어 부족하나마 이 연재를 통한 탐구의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한 가지 더, 독자의 관점에서 중요한 점이기도 밝힐 것은 저는 이 연재의 저자로서 기독교 과학자의 한사람일

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조미료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소금을 감미료와 함께 사용하면 단맛을 증가시켜주는 향미증진제의 역할을 하며, 식품에 존재하는 미생물의 생육을 억제하여 이 더운 여름에 절실한 방부제의 역할도 한다. 이런 소중한 역할을 하는 소금이 얼마나 귀하게 여겨졌는지는 그 여원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소금의 어원은 금처럼 귀한 것 또는 작은 금이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며 로마에서는 군인이나 관리의 봉급을 소금으로 주었다고 한다. 그래서 일을 하고 받는 대가를 영어로 salary라고 하는데 이 말은 '병사에게 주는 소금돈'이라는 라틴어 salarium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성경에서 소금은 자주 언급되어진다. 성경의 배경 팔레스틴에는 소금 골짜기가 있고(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만8천명을 쳐 죽이고, 삼하8:13)(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만명을 죽이고, 왕하14:7), 히브리인들의 주변에는 소금바다, 염해가 있었으며(이들이 다 싯딤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창14:3)(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해에 이르나니, 민34:12), 소금 성읍(님산과 소금 성읍과, 수15:62)의 지명이 있었다.

때로는 영원한 멸망을 마무리하는 의미로 소금이 사용된 성경에서의 언

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와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 좇아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지니 오늘에 이르렀더라, 왕하2:20-22).

소금은 또한 신생, 재생, 부활(rebirth)의 상징이었다. 신생아에게 소금을 문지르거나 뿌리는 관습이 있었고 히브리인 아해에 대한 예식에서는 피 대신 소금이 쓰여지기도 했다. 동물의 희생으로 정결케 된 제단은 후에 소금물이나 소금으로 간한 음식으로 다시 정하게 되었다(네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네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네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레2:13).

또한 소금의 맛은 변하지 않고 썩지 않는다는 신성한 뜻에서 구약성경에는 소금의 언약이라는 말도 있다(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영한 음식으로 너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니라, 민18:19)(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대하13:5).

cse1001@gmail.com

매일가정예배

전화령 목사(캄보디아선교사)

whiteyou11@yahoo.com

월 신자가 주목할 일(고후4:16-18)찬31장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세 가지 사실에 주목하며 살아갑니다. 첫째, 속사람의 새로움에 관심을 가집니다(16). 속사람은 거듭난 영혼 혹은 선한 양심으로 환경이나 육체 곧 일반은총에 의한 새로움보다 그리스도와와의 교제에 주목합니다. 해아래서 찾을 수 없는 새로움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영원한 영광에 끌립니다(17). 세상의 영광과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일반은총의 영광도 귀하나 하늘 영광은 더욱 더 복됩니다. 셋째,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합니다(18). 보이는 것은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하늘과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의 형상을 믿음으로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갑니다. 그 영원한 것을 바라봅시다.

화 신자가 사모하는 것(고후5:1-4)찬40장

신자는 곤고한 일이 많은 세상에서 신령한 복 속에 살아갑니다. 첫째, 영원한 집을 사모합니다(1). 주님이 친히 마련하신 영원히 거할 집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즐거워합니다. 그 집을 마련하신 주님은 그 집에 갈 수 있는 길을 만드시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돌아갈 분향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벌써 그 안식을 누리도록 되어있습니다. 둘째, 영원한 처소에 덧입기를 사모합니다(3). 영원한 처소

란 천당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성품, 의, 인, 신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일상생활에 하나님의 형상 곧 그의 성품이 나타나기를 갈구하는 것이 신자의 소원이어야 합니다. 셋째, 생명으로 덧입는 일을 사모합니다(4). 주님이 자기 양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신 목적대로 신자는 영생을 살 속에 누리기를 원합니다. 영생에 주리고 목마른 신자가 됩시다.

수 믿음의 삶이란?(고후5:5-7)찬46장

믿음으로 구원받은 신자는 믿음으로 확신에 거하기 원합니다. 사도가 본을 보인 확신은 무엇인가요? 첫째, 성령의 확증을 가졌습니다(5). 거듭난 신자 속에 계신 성령이 성경을 깨닫게 함으로 안겨주는 확신입니다. 이것은 선한 양심에 거리낌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바울이 에베소교회에 어디서나 양심에 꺼림없이 진리를 증거한 것과 같습니다. 둘째, 확신의 삶입니다(6). 성령의 확증은 신자를 향

상 담대하게 만듭니다. 사도는 많은 난관을 이런 확신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복음의 담력만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 살았습니다(7). 보이는 것이란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정욕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신령한 세계와 그 복, 그리고 하나님과 그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 본을 따릅니다.

목 주를 기쁘게 하는 삶(고후5:8-10)찬49장

혼란한 세상에 살지만 항상 주를 기쁘게 하려는 목표는 신자가 나아가 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란 어떤 것입니까? 첫째, 주와 동행하는 삶입니다(8). 에녹처럼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많은 업적보다 먼저 그 분과의 인격적 교제가 개인 경건생활에 일어나야 합니다. 둘째, 항상 주의 뜻을 따르는 삶입니다(9). 마리아처럼, 주의 뜻인 성경의 가르침

을 따라 사는 것이 그를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봉사보다 먼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더 복됩니다. 셋째, 삼급을 기대하는 삶입니다(10).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 할 지라도 날마다 심판대 앞에 선 자처럼 자신의 언행심사를 살피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전적으로 헌신합니다.

금 외식을 경계하라(고후5:11-12)찬53장

모든 죄는 언제나 외식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고 사람 앞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기기 위해 어떻게 할까요? 첫째, 주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11). 여호와를 두려워함이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기에 모든 일에 이런 경건한 두려움이 외식을 이기게 합니다. 둘째,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11).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갈 때 외식을 이깁니다. 사

람 앞에서 사는 자는 쉽게 자랑하며 외식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그 분 앞에서 우리는 결코 외식을 따를 수 없습니다. 셋째, 내실 위주로 살아야 합니다(12). 외모로 자랑하려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내실주의 삶의 복됨을 주장해야 합니다. 주님이 제일 경계한 외식주의는 인본주의를 가리킵니다. 하나님만을 상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모든 은혜가 임합니다. 진실위주의 삶을 살아갑시다.

토 하나님의 사랑의 강권(고후13-15)찬71장

사도는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함을 알 때 무슨 결과가 온다고 합니까? 첫째,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게 됩니다(13). 이는 그의 사랑을 알 때 일어나는 자발적인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실패 후 그의 사랑에 부딪힐 때 자신의 목숨도 바칠 각오로 헌신했습니다. 둘째, 교회를 위해 신실하게 됩니다(14-15). 교회는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의 사랑을 아는 자는 교회를 사랑하

게 되어있습니다. 교회를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나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창12:3). 셋째, 오직 주만을 위해 삽니다(15). 그 큰 사랑을 깨달은 자는 그분 위해 살기로 결심하고 그를 섬기는 일을 제일의 목표로 삼습니다. 자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그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갈2:20).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 주최

제4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전

해외 한인 크리스천들이 양질의 신앙도서를 읽고 믿음과 삶, 그리고 사역이 보다 영적으로 성숙해 가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본 언론협회는 제4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전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많이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한국을 제외한 해외 거주 한인 평신도, 목회자, 선교사, 사모 등
- 방법: 추천도서 5권중 한권을 선택하여 읽은 후 독후감을 제출하되 분량은 레터 또는 A4 사이즈 3페이지(글자크기 10포인트, 줄간격 160%)이며 제출 마감은 2018년 10월 31일 오후 5시(미 서부시간 기준)
- 제출처: 이메일 wkcmmailbox@gmail.com으로 제출하되 응모자의 이름, 직분, 출석교회, 전화번호, 거주지 주소를 꼭 명기해 주십시오
- 시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을 11월 15일경 발표합니다. 이들에게는 상장과 함께 각각 US \$1,000, \$500, \$200씩의 부상이 전달되며 선정된 독후감은 본 협회 회원사들의 지면 및 인터넷 신문과 방송을 통해 발표됩니다. 시상식은 12월 초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립니다.

* 참가자 전원에게는 참가상이 주어집니다

* 이미 수상 경력이 있으신 분은 3년 동안 수상대상에서 제외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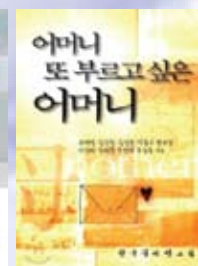
주최: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 (회장 임승쾌 장로)

World Korean Christian Media Association

추천
도서



은혜 받는 습관
데이비드 마티스/생명의말씀사



어머니 또 부르고
싶은 어머니
한국도서출판/루터명외역



아멘 다음이
중요하다
한홍/규장



살피심
김양재/두란노



페이버
하형목/청림

회원사

남미복음신문(상파울, 브라질), 미주기독신문(시애틀, 미국), 미주기독교방송(LA, 미국), 미주복음방송(애너하임, 미국), 미주크리스천신문(뉴욕, 미국), 독일크리스천신문(프랑크푸르트, 독일), 아멘넷(뉴욕, 미국), 크리스천 미디어(시애틀, 미국), 크리스천 월드(토론토, 캐나다), 크리스천 리뷰(시디니, 호주), 크리스천 포스트(토론토, 캐나다), 크리스천 타임스(샌프란시스코, 미국), 크리스천 투데이(LA, 미국), 크리스천 위클리(LA, 미국), 크리스천 헤럴드(LA, 미국), 크리스천 저널(시카고, 미국).

후원

기독교서점협회(회장 전인철 목사)
기독교서적 323-737-7699 www.koramdeo.com
두란노서원 213-382-5400 www.duranno.us
말씀사 714-530-2211 www.lifebook.co.kr
베델서적 949-854-9191 bethelbook@hotmail.com
조이서적 213-380-8793 www.joyla.com

열심히 봉사한 당신, 훌쩍 떠나라!

2018년 휴가철... 크리스천도 쉼 통해 재충전 받아야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사람들이 겪는 문제도 더욱 복잡해지고 다양해졌다. 그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만큼이나 사람들은 지쳐 있다. 모두들 피곤하다고 아우성이다. 누적된 피로 때문에 만성 질환을 앓고 있다. 지쳐 있는 사람들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적당한 쉼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휴가철을 맞아 산과 들과 바다와 계곡, 그리고 해외로까지 바캉스를 떠난다.

크리스천도 피곤하기는 마찬가지다. 힘겨운 직장생활로 받은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싶은 욕구가 그 누구에 못지않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교회를 '떠나기'가 쉽지 않다. 여성성경학교와 각종 수련회 및 수양회 등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어느 한인교회 A 장로는 십수 년째 휴가를 교회 수련회로 대체해 왔다. A 장로 자녀들의 뇌리에는 가족끼리 오붓하게 여름 휴가를 떠난 기억이 없다. 그 누구보다도 절실한 크리스천의 여름휴가... 열심히 섬겼기에 떠나야 한다. 쉼을 통해 재충전 받아 하반기 사역에도 달려 가야 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노동과 더불어 안식을 강조하고 있다. 노동은 안식을 위해, 안식은 노동을 위해 상호 존재함을 알게 해야 한다. 건전한 안식, 생산적 여가란 재창조를 위한 것이며 또 다른 생산인 노동이 없는 여가도 선호하지 못한 것을 가르쳐야 한다.

휴가(Vacation)는 미국말이고, 우리가 흔히 바캉스라고 부르는 말은 프랑스어다. 그 어원은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라는 의미의 Vacatio, 바카티오라는 라틴어에서 나온 것이다. 이 용어는 학생이나 교사 혹은 법관 등에게 주어지던 비교적 긴 휴가를 뜻하다가 20세기 들어 일반인들이 하던 일을 오랫동안 쉬고 휴가를 하는 경우에 쓰이게 된 것이다.

바캉스는 산업의 고도성장으로 생활이 풍족해지면서 여가 활용을 생각하게 됐고 기업 또한 근로자의



다른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 이들도 있을 것이다.

여름휴가 때만이라도 그들을 배려해 준다면, 그들은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해 더욱 헌신된 일꾼들이 될 것이다. 여름휴가는 그들에게 쉼이 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여름휴가철, 모두가 휴식을 찾아 떠나는 와중에도 쉽게 사역의 자리를 떠날 수 없는 이들이 있다. 바로 목회자들이다.

수련회와 단기선교 등 각종 여름 일정으로 7-8월이 가장 바쁘게다가, 교회를 비운다는 것 자체가 성

적절한 휴가, 적게 일하지만 높은 효율 결과 목회자: '쉼' 통해 지난사역 되돌아보고 다음사역 위한 영적 에너지 재충전

정신적, 육체적 자질 향상을 위해 그 필요를 느끼면서 보편화됐다고 볼 수 있다. 유럽인들의 휴가는 일년 중 평균 6주 정도가 된다.

실례로, 프랑스인들이 여름 바캉스를 어떻게 보내는지 살펴보자. 일반적인 제조 대기업의 경우 8월 한 달간은 휴업에 들어간다. 7월 말부터 시작해 4-5주의 휴가를 가는 모습은 매우 일반적이다. 공장의 경우는 가동을 아예 중지하고, 기타 사무직, 연구직의 경우 휴가가 강제되는 것은 아니나 정상 업무는 기대하기 어렵다.

여름 바캉스 기간에는 고향을 방문해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몇몇 가족이 함께 시골의 별장을 빌려 함께 머물며 휴식하기도 한다. 물론 해외여행도 매우 일반적이다. 이 기간 동안 파리에 머무는 프랑스인은 드물다 할 정도로 휴가 대이동이 이뤄진다. 이 기간에 지출하는 비용은 프랑스인의 연중 지출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기도 한다.

놀라운 것은, 이러한 많은 휴가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생산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이다. 특히 가장 긴 여름휴가 후인 9월은 연중 가장 바쁜 달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휴가문화가 정착돼 있기 때문에 모두 예측하고 휴가를 피해 일을 계획하는 것이 일반화 돼있어 긴 휴가를 가는 것이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적게 일하지만 높은 효율을 내는 프랑스인, 그것이 이들의 휴가 문화가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다.

한편 미국인들의 휴가는 겨우 2주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미국인들은 한 해에 한번은 반드시 휴가를 가야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휴가라는 것을 생활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여기기도 한다. 휴가를 가지 못하게 되면 비참하게 여길 정도다.

바나리서치에 따르면 크리스천일 수록 % 정도가 7-8월에 2주 정도의 해외여행을 한다. 주로 단기선교로 가기도 하지만 말 그대로 바캉스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 미국교회도 이 기간에는 주일예배 시 예배당이 한산해진다.

한인교회에서는 중책을 담당하는 크리스천 직장인 일수록 쉼이 부족하다. 분주한 6일 간의 매진이 끝나면 주일에는 교회에서 봉사라는 책임과 의무에 매인다. 물론 즐거움으로 하지만, 그러나 쉬고 싶을 때도 있다. 어쩌면 그들에게는 1년 내내

자유로운 쉼이 단 한 번도 없을지 모른다. 그러기에 그들의 여름휴가는 쉼이 돼야 할 것이다.

교회는 이들을 무지 말고 풀어주어야 한다. 유일한 여름휴가가 종교적인 의무로 어쩔 수 없이 헌납되지 않도록, 간접적으로라도 부담이 돼 죄책감을 주지 않도록 자유롭게 맡겨져야 한다.

이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휴가 기간 동안 교회에서의 봉사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더 큰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할지 모른다. 그렇다. 얼마든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묵음이 아니라 풀림을, 평화와 기쁨의 쉼을 누릴 수 있다. 그것이 오락과 재미로 묵음 여가보다 비교할 수 없이 값질 것이다. 그러나 그것도 자원함으로가 아닐 때, 요구된 율법과 부담이 될 때는 의미가 없지 않을까?

그들 중에는 교회에서의 봉사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관계회복의 필요가 있는 이들이 있을 수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회복뿐 아니라 가족들과의 관계회복이 필요한 이들이 있을 것이다. 보다 더 준비되고 싶거나 치유되고 싶어 개인적으로

도들의 눈치를 보는 일이 됐기 때문이다. 중대형교회는 담임목사들이 한두 달씩 재충전을 한다지만 일꾼이 없는 작은 교회에서는 그저 먼 나라 이야기다. 하지만 목회자가 먼저 쉼을 얻어야 성도들에게 더 큰 은혜를 전할 수 있는 법이다.

목회자들은 마치 러닝머신 위에 있는 것과 같다. 그들은 선교 사역부터 시작해 병원 방문, 설교준비, 심방 등 열정이나 에너지가 소진될 때까지 계속 달린다. 목회자들은 결국 탈진한다. 휴가와 안식년은 일의 균형감을 갖게 한다. 또 리더들에게 힘을 실어줘 목회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한 방법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삶의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기회가 목회자에게 필요하다. '쉼'을 통해 지난 사역을 되돌아보고 다음 사역을 위한 영적인 에너지를 재충전할 수 있도록 '휴가'가 필요하다. 깊은 휴식을 통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도 들을 수 있어, 앞으로의 시간을 계획하고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모두에게 있기를 바란다.



GMS 브라질 남부지부 선교사회가 예정합동 전계현 총회장 일행 환영 환영식을 마치고 기념촬영 했다.

예정합동 전계현 총회장 일행 환영 GMS 브라질 남부지부 선교사회

GMS 브라질 남부지부(지부장 강성철 선교사) 선교사회는 지난 7월 25일 정오 Dinho, S에서 브라질 IPB 총회의 초청을 받고 브라질을 방문한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전계현 총회장을 비롯한 총회 임원단을 환영했다.

지부장 강성철 선교사가 지부원들과 함께 '제자 뱃 방 두 노미 두 제수스'(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인사를 드린 후 총회장의 인도로 예배를 드렸다.

부총회장 최수용 장로 기도

후 전 총회장은 민수기 6장 24-26절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고 선교사들을 축복하며 예배를 마친 후 참석하신 선교사들과 한인 목회자들을 소개받았다.

전계현 총회장은 일선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들과 '순교사'라 불리우는 한인 목회자들을 격려하고 선교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식사를 대접하고 총회 배지를 선물했다.

오찬 후 총회장 일행은 IPB 총회에 참석했다.

(기사제공: GMS 브라질 남부지부)



미주남침례회 한인교회 총회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신임 총회장 최영이 목사 취임감사예배 미주남침례회한인교회총회, 7월 22일 도버한인침례교회서

미주남침례회 한인교회 총회(CKSBCA) 신임 총회장 최영이 목사의 취임감사 예배가 지난 7월 22일 오후 5시 30분, 도버한인침례교회에서 열렸다.

찬양팀의 성령충만한 찬양 인도와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으로 시작된 감사예배는 도지택 증경총회장이 "주님이 원하시는 지도자"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도지택 목사는 "최영이 목사가 총회장으로 겸손한 지도자가 되어 주님 앞에 귀히 쓰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영이 목사는 취임사를 통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축하의 메시지들과 화환들이 취임식을 더욱 빛내주었고 함께 기뻐하며 축하하는 성도들의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여선교회에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만찬은 참여한 모든 분들이 풍성하게 교제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기사제공: 미주남침례회 한인교회 총회)

교회 이동 디스플레이 및 디자인 전문

카라반캐노피는 대형프린팅 분야에서 18년의 전문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안 수정, 로고 제작, 한글 캘리그래피 디자인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며 고성능 프린트 작업으로 최고의 만족도를 약속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모든 디스플레이 제작, 맞춤형 서비스

CARAVAN CANOPY
Division of Faith

- ✓ 현수막 | 천막
- ✓ 접이식 배너 | 디스플레이
- ✓ 프로모션 상품
- ✓ 디자인서비스

VINYL BANNERS
2' X 5' with grommets : \$25 Plus tax if applicable
4' X 5' with grommets : \$50 Plus tax if applicable

MESH/POLY FABRIC BANNERS
2' X 5' with grommets : \$35 Plus tax if applicable
4' X 5' with grommets : \$70 Plus tax if applicable

플래그, X 배너 거치대, 롤업배너, 현수막, 벽걸이 포스터, 미디어벽

미주남침례회 송구영신예배
2017.12.31 주일 저녁 10시 30분 비전센터 분당

14600 Alondra Blvd. La Mirada, CA 90638 | T. 877.922.6679 | 한국어. 714.367.3046 | www.caravancanopy.com